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심리 상담 / 치료
이경민
존스 홉킨스 대학원 석사
771.240.6313
rachellee@sunstonecounselors.com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15호

Wednesday, June 11 2025 A

시위대 다수는 사회불만세력

‘프로 데모꾼’ 연방단속 반감

LA에서 주방위군 투입사태를 불러온 폭동 시위 참가자 다수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사회 불만이 가득한 합법적 체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NN 등은 6일 불법체류자 직장 단속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저항한 이들은 대부분은 합법적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진압경찰과 주방위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샷대질을 하고 있는 시위대 참가자 대부분은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체포돼 끌려가는 불법체류자를 돕기 위해 나선 평범한 시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시위대 속에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란한 상황을 틈타 공권력에 저항하고 무질서를 선동하는 폭력분자도 다수 섞여 있다고 반박했다.

정보당국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미국의 과거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LA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태극기를 들고 경찰에 맞서고 있다.

[로이테]

‘프로 데모꾼’이라고 지적했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와 고의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범법 시위자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들 폭력배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최대 노조인 서비스종업원국제노조(SEIU), 운수노조 팀스터 및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캘리포니아지부, 미국 노동연맹·산별조직회의(AFL-CIO)의 전국본부 등이 이민자 단속 반대에 연대를 공식 선언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김욱재 기자

북한에 무기 밀수출 중국인 불체자

유죄 인정 함의

미국에서 총기 등 무기를 구입해 북한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사실상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 당국과 ‘플리바게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무부는 9일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 사는 중국 국적의 성화 웬(42)이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 1건과 외국 정부의 불법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웬은 북한에 총기와 탄약을 밀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연방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2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됐지만, 미국에 계속 불법 체류했다.

그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선했다. 이후 웬은 2022년 북한 정부 관계자 2명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로 총기

등을 구입해 중국을 우회해 북한으로 밀수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듬해 5월에는 북한 측이 보낸 돈으로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판매상을 사들였다. 웬은 총기와 탄약을 ‘냉장고’라고 속여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컨테이너에 선적해 홍콩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다.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수사 당국은 웬의 집에서 그가 북한에 보내려던 군사용 화학 위험 식별 장치와 도청 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을 압수했다. 이후 웬이 북한에 보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9mm 탄약 5만여발을 추가로 압수했다.

법무부는 웬이 미국의 브로커로부터 드론이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열화상 장비와 민간용 항공기 엔진 등을 구입하려고 시도했다고도 밝혔다. 웬의 선고 기일은 8월 18일이다.

장윤서 기자

IAEA “영변에 새 핵시설 건설 중”

복잡해지는 이재명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새로운 핵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핵 능력 증강을 위해 영변을 중심으로 ‘핵시설 캠프(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핵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새 정부의 북핵 해법 역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IAEA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영변에서 북한이 새로 건설하고 있는 건물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크기와 특징 면에서 강선 농축시설과 유사하다”며 “강선과 영변에 있는 신고되지 않은 농축 시

설은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고 전했다.

강선은 북한이 보유한 최대 핵시설인 영변 핵시설 다음으로 큰 북한의 핵 개발 거점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은 영변과 강선 외에는 위치나 구조 등이 공식적으로 정확히 확인된 적이 없다. 새로운 시설이 가동된다면 실제가 파악되는 세 번째 핵시설이 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시설을 5곳으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시설과 관련해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들도 있다”며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미국 기독교인 급격히 줄어, 무슬림 증가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피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인구 중 기독교인 비율은 2010년 78.3%에서 2020년 64.0%로 14.3%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무슬림은 1% 미만이었으나 현재 1.2%로 유의미한 숫자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기독교에서 이탈한 신도가 무신론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계층은 무신론자로 2010년 16.5%에서 29.7%로 늘었다.

유대교는 1.8%에서 1.7%로 감소했으나, 불교는 1.2%에서 1.3%로 늘고 힌두교, 기타 종교는 1% 미만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한국 기독교는 32.1%에서 32.0%로 소폭 감소했으나 불교는 25.6%에서 19.0%로 크게 줄었다. 무신론자는 41.3%에서 48.3%로 크게 늘었다.

전세계적으로는 무슬림 인구가 최근 10년간 3억5천만명 늘어났으며 종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무슬림 인구는 10년 사이에 3억4천 700만명 증가한 20억명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무슬림이 세계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8%포인트 증가한 25.6%로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1억2천200만명 증가한 23억명으로, 28.8%를 기록했으나 비율은 1.8%포인트 줄었다.

보고서는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 비교적 낮은 타종교 이탈률 등으로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힌두교는 인도 인구 증가세에 힘입어 1억2천600만명 늘어난 12억명에 달해 세계 인구 중 14.9%로 나타났다.

김욱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1대1 통합

인천-델레스 공항 6944마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합병 비율이 '탑승 마일리지' 기준 1대 1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쌓은 '제휴 마일리지' 합병 비율에는 일부 차등을 둔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인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로 통합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대한항공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

준으로 적립된다. 대한항공 일반석을 이용해 인천에서 워싱턴 델레스 공항으로 여행할 경우 편도 6944마일이 적립된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수준이다. 2011년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노스웨스트 항공 합병, 2004년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 합병에 따라 두 회사의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통합됐다.

항공사 제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엔 통합 비율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책정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카드사가 항공사를 상대로 구입하는 1마일당 가치는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이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 왔다.

시장에서 인정하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다른 만큼 동일하게 통합하면 대한항공 제휴 마일리지를 주로 쌓은 고객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영우 기자

성인 2명중 1명 돈걱정 '밤잠 설치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어닥친 경기침체에 따른 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어포터블하우징허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2명중 1명꼴인 응답자의 53%가 재정적인 걱정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을 비롯한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인플레이션, 주거 불안정, 생활 환경 등의 항목 위

주로 했다.

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얼 및 Z세대 여성 중 상당수가 생필품 구입을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있는데, Z세대 여성 56%와 밀레니얼 여성 51%가 음식과 주류, 기본 생계비를 신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재정 스트레스와 관련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기혼자보다 41%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5명 중 1명은 재정 문제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면서 상당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최근 정부나 기관에서 내놓은 경제 안정화 추세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삶은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김성환 기자

연방학자금(FAFSA) 지원 신분 확인 강화

정부 발급한 신분증 요구 "신원도용 사기 방지 목적"

연방 학자금 융자 신청 시 학생들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 6일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며 "신원 도용 및 사기 근절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2026학년도에 처음으로 연방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학생 약 12만5000명은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정부 발급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직접

또는 영상 통화 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즉, 학생이 FAFSA(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 제출 후 학교 측에서 신분 확인을 요청하면 학교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 FAFSA에 사회보장번호(SSN),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서류 제출이 요구됐으나, 이제 더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가 도입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분 확인 절차 강화에 대

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원 도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300만 달러가 넘는 펠그랜트(Pell Grant-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일정액의 대학 학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와 캘그랜트(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가 잘못 지급됐다. AI를 이용해 학생 정보를 도용하거나, 로봇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에 등록한 뒤 지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윤지혜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트럼프 대통령 특수전 사령부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화) 오후 노스 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를 방문했다.

포트 브래그는 그린 베레와 레인저스 등 특수부대를 관할하는 합동 특수전사령부가 위치해 있다. 트럼

프 대통령은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일선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언론에서는 LA 시위 사태와 주방위군-해병대 파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좌파 정당-단체 워싱턴DC 이민단속항의 시위

사회주의당(PSL) 워싱턴 지부가 10일(화) 오후 워싱턴DC 컬럼비아 헤이츠 플라자 등에서 불법체류자 추방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주택가와 식당,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 등에도 방탄차량을 주차시키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퍼뜨렸다.

신생아에 1000달러 종잣돈 지급 확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월) 모든 신생아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이른바 '트럼프 계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태어난 아기에 1000달러를 지급하고, 보호자가 소유·관리하도록 하는 계좌다. 계좌에 들어간 돈은 미국 주가지수와 연동하고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세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게 골자다. 세금이 연 계좌로, 당사자가 18세가 되면 돈을 찾아 주택, 교육 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인출 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2025년 1월 1일생부터 4년 동안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제외된다.

조지타운 포토맥강변 개방 지역 늘린다

국립공원관리국(NPS)이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 접근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NPS 소유 토지 일부를 포토맥강 조지타운 부두 확장에

사용하고 일반 대중 접근 수변 구역도 늘릴 계획이다.

조지타운 대학이 소유한 일부 강변부지도 대중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3월 추방 VA 불체자 2100명, 페어팩스 504명

지난 3월 버지니아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2112명으로 추산된다.

초당적 단체 TRAC에 의하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만 모두 504명이 추방돼, 10번째로 추방 인원이 많은 카운티로 꼽혔다.

버지니아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

지아, 노스 캐롤라이나와 함께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조가 가장 잘 이뤄지는 곳으로 꼽혔다.

버지니아는 라우던 카운티 등 모두 21개 지역정부가 이민당국과 287(g) 협약을 맺었다.

김옥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12일(목)	92-68	☀️	15일(일)	74-63	☁️
13일(금)	89-70	☁️	16일(월)	77-64	☁️
14일(토)	83-67	☀️	17일(화)	81-68	☁️

6월 11일(수) 87-6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모기지 쇼핑 워싱턴지역 10만불 절약

최소3곳 이상 비교 분석해야

평균 모기지금리가 7%에 가까운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주택구매자들은 대출상품 비교를 통해 최대 10만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렌딩트리 가 지난1-4월 웹사이트에서 두 개 이상의 30년 고정금리 대출 제안을 받은 전국 8만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총대출 기간 동안 평균 8만 24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 월단위로 환산하면 222달러, 연간 2667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작년 같은 분석에서 나온 절감액이었던 7만6410달러보다 약 3600달

러 많은 수치로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버지니아의 경우 모기지 쇼핑을 통해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전국 기준과 비교해 훨씬 더 컸다.

버지니아에서는 총 9만6084달러를 아낄 수 있어 전국 9위를 기록했다. 이는 버지니아의 평균 모기지 금액 35만7937달러에 각각 최저와 최고 금리 평균치인 6.69%와 7.79%를 적용한 최종 납입금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다. 1.10% 포인트 차이로도 상당해야할 금액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릴랜드는 버지니아보다 많은 10만 228달러로 7위에 올랐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매월 절약하는 모기지 납부액은

각각 267달러와 278달러였다.

APR에는 이자율 외에도 포인트, 브로커수수료, 기타비용이 포함된 실질대출비용이 포함됐다. 한편 업계는 모기지 금리가 대출자 본인의 크레딧 외에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방식, 운영비용, 대출요건, 지역경쟁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는 필수라고 전했다.

리얼터닷컴의 수석 경제연구원 해나 존스는 “같은 사람이라도 금융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금리를 제시받을 수 있다”며 “모기지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최소세 곳 이상의 제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야생 곰’ 메릴랜드서 버지니아로 이동

9일 헌터 주택가에 출현 한인들, 각별한 주의 요망

버지니아주 헌터에 야생 곰이 출몰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헌터 경찰에 따르면 앨라바마드 라이브와 힐우드 코트 선상의 한 주택가에 흑곰이 나타났다. 이곳은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길 양옆으로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올해들어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최초로 목격된 이번 곰은 메릴랜드주를 휘젓고 다닌 1살짜리 수컷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곰은 지난 달 26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한 주택 마당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처음 목격되었고, 일주일 후 베데스다의 다른 가정 뒷마당으로 이동했다. 이후 800블락 엘든 스트리트에 나타난 후 버지니아 헌터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곰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경찰 또는 버지니아 야생동물 관리국(855-571-9003)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헌터 경찰은 이 흑곰에게 애칭으로 ‘엘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동물관리국 관계자는 “굶주린 야생 곰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려면 야외에 있는 애완동물이나 모이통을 치우고 음식물 찌꺼기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청소년재단 6.25 한국전쟁 기념공원 방문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김범수 목사)이 지난 주말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탐방했다. 김범수 목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자녀들로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청소년 재단은 9월부터 방과후 학교와 리더십 개발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갖는다. 문의 240-722-7198

불체자 단속 LA시위 ‘워싱턴으로 확산’

서비스 국제연합 32BJ 주최 시위자들, 단속 중단 ‘요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과 관련 로스앤젤레스(LA)에서 촉발된 시위가 워싱턴DC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연방 법무부 밖에서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노조가 모여 ICE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 행사는 서비스직원 국제연합 32BJ가 주최했고, 연사로는 민주당 소속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제

7지구)이 나섰다.

자야팔 의원은 연설에서 “모든 법적 신분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규모 이민 단속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 “얼음 단속 중단하라”는 등 깃발을 들고 항의에 나선 시위자들은 집회 후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있는 연방 법무부 건물 앞을 행진하며 ICE 급습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서 온 케리 러시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대학부터 로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거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가족 이민자를 위해 참여했다는 메릴랜드 타코마에 거주하는 메그 부어스는 “요즘 이민 단속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샐러드 바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58)씨는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지역사회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하루빨리 단속이 완화되기를 바랐다.

애난데일 한국도로 명칭 추진안 ‘철회’

리틀리버 터파이크 대신 존 마 드라이브 다시 제안

안드레스 히메네스 메이슨 수퍼바이저는 그동안 워싱턴 한인사회가 추진해오던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에 있

는 ‘리틀리버 터파이크’ 도로에 한국 명칭을 붙이자는 제안을 철회했다.

한국 도로 명칭 아이디어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언론 애난데일 투데이에 따르

면, 히메네스 수퍼바이저는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차선 대안으로 리틀리버 터파이크와 컬럼비아 파이크 사이에 위치한 ‘존 마 드라이브’에 명예 명칭을 붙이는 안을 올려 승인을 받았다.

이 안건은 16일 회의에서 명칭 변경을 논의하고 차기 총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어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옴니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인

DUO NY 212-915-7115

1석 5조 통합보험

5 in 1

-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Life Insurance (생명보험)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융자 ■ 메디케어 (Medicare)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경찰들이 9일 시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주자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대치 중이다. 현지 경찰들은 최루탄, 섬광탄, 고무탄 등을 동원해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시위대 역시 화염병으로 맞선다.

[연합뉴스]

해병대 투입 소식에 LA시위 더 격해졌다

긴급진단

“안 돼요! 제발 쓰지 마세요! 제발 그만 하세요!”

9일 엄마·아빠, 남동생과 함께 시위에 참여한 14살 크리스티나(가명)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터진 최루탄 소리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 가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기자들과 함께 서 있던 곳에도 연기가 피어올랐다. 섬광탄과 최루탄에 이어 경찰 진압대가 고무탄을 쏘며 한꺼번에 밀려들자 크리스티나의 가족도 급히 시위대와 함께 섞여 몸을 피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불법 이주자 체포 작전에 항의하며 시작된 로스앤젤레스(LA) 시위 나흘째인 이날 오전까지 시위 중심지인 연방 건물(Federal building) 주변엔 시위대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사람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도 원인이 됐다.

그러나 오후 들면서 시위대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에게 있던 주방위군 지휘권을 국방장관에게 넘긴 데 이어, 이날 해병

대 700명 투입을 결정하면서다.

해병대 투입 소식을 듣고 급하게 시위 현장을 찾았다는 오스카 토레스는 “사실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해 왔던 친구와 가족들이 체포돼 구금돼 있다”며 “그들을 위해, 또 옳은 것을 위해 두려움을 참고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배트맨 복장 차림으로 자신을 ‘배트맨’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트럼프는 권력을 남용해 헌법에 명시된 미국인의 권리와 미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2025년 미국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사태가 과거 나치가 했던 일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날 LA 경찰과 주방위군은 연방 건물을 봉쇄했지만, 시위대를 향해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 시위대가 건물 앞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오후 5시쯤 건물 양옆 100m 옆에 무장한 병력을 태운 군용 차량을 진입시켜 시위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이 나왔지만 시위대의 함성에 묻혀버렸다.

잠시 후인 5시30분. 상공엔 여러 대의 경찰 헬기가 저공비행을 시작했고, 군병력이 발사한 최루탄을 신호탄으로 경찰과 주방위군이 고무탄을 한꺼번에

시위대, 정예병력 투입에 강력반발
“나치가 저지른 일과 뭐가 다르냐”

섬광탄·최루탄에 고무탄까지 발사
CNN 취재진도 체포됐다가 석방

트럼프, 주방위군 2000명 추가배치
“군대 투입 안했으면 LA 불탔을 것”



미 북부사령부는 9일 진압을 위해 해병대원 약 700명을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방위군 증원을 추가 발표하며 대응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강태화 기자

발사하며 돌진했다.

일부 시위대는 물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지만, 시위대 내에선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평화로운 시위”라는 구호가 퍼졌다.

그러고는 다수의 시위대가 진압대의 총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비저항 시위를 펼치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군중 속에선 “폭력을 사용하면 트럼프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이 바람에 진압 작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건물 고층에서 망원경을 보며 상황을 지휘하던 군복 차림 남성들의 신호와 함께 군인과 경찰 병력은 재차 전진하며 10여분 만에 시위대는 연방 건물 100m 밖으로 밀려났다. 본진이 완전히 건물 앞에서 해산하기까지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일부는 인근 일본인 거주지 ‘리틀도쿄’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체포됐고, CNN 취재진도 일시 체포됐다가 석방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24시간 이내에 해병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병대 병력 투입 이후 시위의 전개 상황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위대는 정예 병력 투입에 강하게 반발했다. 카디나 마르티네스는 “과거 아프리카계를 시작으로 이번엔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일이고, 앞으로 일본과 한국계에도 나타날 일”이라며 “트럼프의 의도에 말려 폭력 사태로 확대돼서도,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시위를 중단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선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약 700명의 해병대가 캠프 페들턴에서 LA로 질서 회복을 위해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고, 미 북부사령부도 “제1 해병사단 산하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병력과 함께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며 해병대 투입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기존에 투입 결정된 주방위군 2000명을 포함할 경우 LA 시위에 군병력 4700명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그는 10일 트루스소셜에 “지난 사흘간 내가 LA에 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한때 아름답고 위대했던 도시가 완전히 불타버렸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강태화 기자

“트럼프 장남, 한국인 트라우마 이용 말라” LA한인회 강력 경고 왜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1992년 LA 폭동 사태 당시의 한인 자경단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LA 한인회가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9일 LA 한인회는 성명을 통해 “LA

에서 아직 소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3년 전의 LA 폭동 당시 ‘루프탑 코리아’를 언급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종하는 게시물을 엑스에 게재하는 경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대통령의 장남이자, 약 1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그의 행

동은 살얼음과 같은 지금 시기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어떤 목적으로든 절대로,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 등에 과거 LA 폭동 당시 한인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올리고 “옥상의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고 썼다. 해당 사진은 한인

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장전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사진에는 “한인들이 옥상에 오르

자 폭동이 멈췄다”는 설명도 달렸다.

1992년 발생한 LA 폭동 당시 폭동들의 표적이 돼 약탈·방화 등 피해를 본 한인들은 총기로 무장한 체 자경단을 꾸려 한인타운을 지켰다. 폭동 사태 당시 자체 무장한 체 옥상에 올라가 코리아타운을 지켜낸 한인들을 뜻하는 ‘루프탑 코리아’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

It's Okay,
with
Jesus!



한인 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반대 시위에도 강경 단속 지속 ICE·FBI 다운타운 업소들 탐문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연방 당국은 불법체류자 색출 작업을 본격화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오전 9시 30분경, LA 다운타운 인근 샌피드로 마트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 소속 요원 10여 명이 현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원들은 일부 업소를 돌며 탐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상황이 알려지자 샌피드로 마트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일부 업소는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름 공개를 꺼린 한 관계자는 “10명 중 6~7명은 떠났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한동안 머물렀다”며 “수색인지, 감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업체 관계자도 업체 단속 소문이



9일 오전 FBI와 ICE 요원들이 자바시장의 샌피드로 패션마트 2층 매점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독자제공)

돌아서 일찍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다.

인근 매장에서 일하는 한 라틴계 직원은 “오늘 오전에도 샌피드로 스트리트와 23번가 인근, 그리고 워싱턴 블러바드와 샌트럴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ICE가 출몰했다고 친구에게 들었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라틴계 노동자들이 많은 헌팅턴파크 지역에서도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들이 목격됐다.

KTLA에 따르면 슬로슨 애비뉴에 위치한 휴디포 주차장과 도로에서 CBP 차량 여러 대가 포착됐으며, 요원들이 트럭에서 내려 미표식 SUV 차량으로 옮겨갔다.

헌팅턴파크 시 대변인은 ICE 요원들이 오전 7시30분쯤 해당 지역을 찾았으며 인근 메이우드 지역에서도 ICE 차량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

난임 클리닉 테러 공범 한인 ‘반출생주의’ 심취

지난달 발생한 팜스프링스 지역 난임 클리닉 차량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된 박종연(32·Daniel Jongyon Park·사진)씨가 수년 전부터 ‘반출생주의’ 동조 온라인 모임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터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드잇(Reddit)에 ‘반출생주의’ 관련 게시글을 자주 올렸다. 그는 주로 ‘반출생주의’ 운동에 동참할 인원을 모집

글을 게시했으며, 이를 희망적인 활동으로 묘사했다. 지난 3월에는 워싱턴주 일대에서 시위 또는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할 반출생주의자들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레드잇에 “사람이 길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죽음은 언제나 하나의 선택지”라는 글도 남겼다. 테러로 사망한 바트쿠스 또한 레드잇과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반출생주의’ 이념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을 자주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테러를 앞두고 개설한 웹사이트에는 자신의 사상을 담은 30분 분량의 오디오 파일과 선언문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준 기자

FBI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6년

세계은행, 미국 성장률 전망 2.3→1.4%

(올해)

세계은행(WB)이 올해 전 세계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해 기존 전망보다 눈높이를 낮췄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세계 성장률을 종전(1월) 전망치인 2.7%보다 0.4%포인트 내린 2.3%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7%에서 2.4%로 내려 잡았다. WB는 성장 전망

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로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 금융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이번 전망대로라면 세계 경제는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역성장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 WB의 이번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내놓은 수치보다 낮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IMF는 2.8%로 각각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WB의 전망

은 5월 말 기준 관세율이 유지된다면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기기로 했던 145%의 관세율을 30%로 낮췄고, 유럽연합(EU)산 제품에도 50%의 관세를 예고했다가 보류했다. 이처럼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할 조짐이 있지만, WB는 여타 기관보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하방 위험을 크게 봤다.

특히 WB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렸다. 올해 미국 성장률이

기존 대비 0.9%포인트 낮은 1.4%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내 실효 관세율이 오르고 무역 상대국이 보복에 나서는 구도가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미국 성장률이 1.9%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전반적으로 내려갔다. WB는 선진국 종합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대비 0.5%포인트 낮춰 1.2%로 제시했다. 유로 지역은 0.3%포인트, 일본은 0.5%포인트 하향 조정해 각각 올해 0.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했다. 신흥·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조정 폭이 작았다. 올해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3%포인트 낮은 3.8%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4.5%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번에 WB는 한국에 대한 전망은 따로 하지 않았다. 대신 주요 투자은행(IB)은 새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조치를 반영해 한국에 대한 전망치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1%로 올렸고, 모건스탠리도 1%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애플 대학생 개발자 수상식서 한인 시연

지난 8일 오전 가주 쿠파티노 애플 본사에 마련된 야외무대에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헬로우, 에브리바디”라

고 말하면서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즐겨 입는 파란색 반소매 티셔츠에 회색 바지의 캐주얼한 복장을

했다. 애플의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그는 올해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에 선정된 전 세계 대학생의 앱을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는 WWDC 행사 중 하나로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우수한 앱을 개발한 학생들을 선발해 격려하는 애플의 인재 양

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지원해 38개국 및 지역에서 350명이 입상했고, 이 중 50명이 우수 수상자로 선정됐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돌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금(미약소) 몰
웨이팅도래방

미락조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中 런정페이 “화웨이 반도체, 미국보다 한세대 뒤져…”

미국, 우리성과 과장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81) 창업자 겸 회장이 자사 인공지능(AI) 칩 분야 성과가 미국에 의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런 회장은 1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센드 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서 칩을 만드는 회사는 많고 그 가운데 다수 기업이 잘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며 “미국은 화웨이의 성과를 과장했다”고 답했다.

이어 “화웨이는 아직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며 열심히 해야 그들의 평가에 도달할 수 있다”며 “우리의 단일 칩은 여전히 미국보다 한세대 뒤쳐져 있다”고 평가했다.

런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해선 안 된다는 방침 발표와 관련돼 있다. 지난 5월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어떤

국가든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하며 이런 조치를 실행한 조직·개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지난 2015년 10월 21일 영국 런던에서 런정페이 회장(오른쪽)을 만난 뒤, 런정페이 회장이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 속에 고성능 칩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수학으로 물리학을 보완하고, 비(非) 무어의 법칙으로 무어의 법칙(반도체 성능이 18~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관측)을 보완하며, 클러스터컴퓨팅으로 단일 칩을 보완한다”면서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실용적인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런 회장은 “언제든 어려움이 없었겠느냐”며 “중국은 중저급 칩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페이 화웨이 회장에게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사무실을 안내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수십 수백개 칩 회사가 모두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화합물반도체에서 기회가 더 크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화웨이의 첨단 칩 제조 노력과 관련해 런 회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런 회장은 “매년 1800억 위안(약 34조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 약 600억 위안(11조원)은 기초이론 연구를 위한 것으로 심하지 않는다. 나머지 1200억 위안은 심사를 거쳐 제품 연구개발에 투입한다”며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

면서 “(기초)이론이 없으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2019년 미국의 제재로 해외 첨단 반도체 기술을 들여오기가 어려워지자 자체적으로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런 회장은 이밖에 AI와 중국의 미래와 관련해 “인공지능은 인류사회의 마지막 기술혁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은 많은 장점을 보유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매우 빠르다. 많은 중국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발할수록 우리는 더 발전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봉쇄를 돌파하고,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런 회장의 인터뷰는 이례적으로 인민일보 1면에 실렸다. 또한 이번 인터뷰는 미중 무역대표단이 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개됐다. **조문규 기자**

러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해 반전 노력하면…”

지구종말 수준 핵전쟁

블라디미르 메딘스키(사진)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되찾으려 한다면 지구의 종말을 부르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러시아 측의 휴전 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메딘스키 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러 매체 RT와 인터뷰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 표현)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땅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땅은 ‘거대한 카라바흐’가 될 수 있고, 결국엔 핵전쟁이 일어나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이다.

양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현재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가 향후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휴전이 아닌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협상단과 비공식

적으로 대화했을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유혈 사태를 멈추려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보였다”며 “문제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협정 체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직후인 2022년 2월 28일에도 현재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더 약한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했고 우크라이나도 합의했다”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영국, 미국과 대화한 뒤 ‘외국 파트너들이 반대한다’며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원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면 그때 평화협정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오스트리아 고교서 총기 난사

최소 10명 사망 “국가적 비극”

10일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엘케 카어 그라츠 시장은 이날 현지 APA 통신에 “오늘 아침 총격 사건으로 현재까지 10명이 숨졌다”며 “사망자 중에는 학생들도 있고 부상자 여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끔찍한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총격범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지 매체 잘츠부르거나흐리히텐은 총격범이 과거 이 학교에 재학했던 22세 남성으로, 권총과 산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크로넨차이퉁은 총격범이 학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총격범이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특수부대와 구급차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 대변인은 “현장은 안전하게 확보됐으며, 모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 완료됐다”



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남동부에 있는 그라츠는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그라츠의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국가적 비극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며 “지금 오스트리아 전체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2017년 기준 인구 100명당 약 30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총기 소유율이 14번째로 높은 국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과거에도 총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20년 수도 빈 도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했다. 1997년 11월에는 마우터른 도르프에서 36세 정비공이 6명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임신한 여친 커피에 몰래 낙태약 넣었다

텍사스주의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의 커피에 몰래 낙태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BBC 등에 따르면, 저스틴 앤서니 밴타(38)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낙태약을 먹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개월간 조사를 받은 끝에 지난 6일 살인 혐의

로 체포됐다. 파커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밴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를 커피숍에서 만난 뒤 미리 산 커피를 건넸다. 커피를 마신 여자친구는 다음날 과다 출혈로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유산했다.

여자친구는 밴타가 자신 몰래 커피

에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넣었다고 의심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밴타가 ‘낙태약을 이용해 중절하자’고 제안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예수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부고

故 정성낙님께서 지병으로
2025년 6월 3일 8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고히 잠드셨습니다.

고별 / 하관 예매는 없습니다

〈약력〉

- 전 워싱턴대한체육회 회장
- 전 사격협회 회장
- 전 반공동지회 회장

전 워싱턴대한체육회 회장 일동

6월 프로모션

기간: 5.29.2025-6.26.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6월 내 설치

다양한 고객 혜택과 타사제품 보상 특별 혜택!

- ✔ 일시불 최대 **25% off**
- ✔ 렌탈 계약시 최대 **5개월 면제**



고민 끝에 바꾸셨다면, 더 풍성하게 챙겨드릴게요.

BRAND STORE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240-595-2257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AC-AA091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이 대통령 “특검 통해 진실 규명”... 3특검 정국 시작됐다

3대 특검법 주요 내용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명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검 규모	최대 267명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특별 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00명)	최대 205명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특별 수사관 80명, 파견 공무원 80명)	최대 105명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특검별로 각 1명씩 후보 추천, 대통령이 1명씩 임명		
기간	170일 이내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170일 이내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140일 이내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내란심판 바라는 국민 뜻 부응”
 민주당·조국혁신당만 특검 추천
 늦어도 22일까지 3특검 모두 출범
 야당 “사정에 의존하는 정부”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주일 만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을 공포했다. 집권 초반부터 전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칼날’을 꺼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번째 공포 법안으로, 국회가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통한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해 왔다. 4일 취임사에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민주당도 5일 국회에서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함에 따라 내란·김건희 특검은 가장 11일, 순직 해병 특검은 가장 12일 내 특검을 임명해

야 하는 만큼 늦어도 22일까지 3대 특검이 모두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 3개가 동시 발족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파견 검사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의 6배에 이르는 120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00여명)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0여 명이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특검 40명이 투입되는 김건희 특검법은 총 16개 대상을 수사한다.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이권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총망라한다. 특검 60명이 투입되는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11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계엄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조사해 쿠데타를 돕고 계엄 해체를 방해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윤 정부는 3대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각각 4차례(김건희 특검법), 2차례(내란 특검법), 3차례(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인자된 별건(別件)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 언론 브리핑은 물론, 재판 과정 생중계도 가능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추천을 국민의힘은 배제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할 수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정정국이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집권 정부·여당이 왜 민생을 제쳐두고 특검법부터 공포하는지, 정쟁과 사정 정국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는다”고 비판했다.

김규태·김기정 기자

윤 정부 관료들 특검법 반대에 이 대통령 “다 말씀하시라”

국무회의서 때어난 특검법 토론 이 대통령 “삼권분립, 나도 딜레마”
 “얘기하실 국무위원분들은 다 말씀하시셔도 된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때어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특검법)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간에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포문은 이날 사회를 맡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열었다. 이 대행은 “(전 정부 때)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상당수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제안드리다”고 말했다

고 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얘기하실 분들은 다 말씀해 보시라”며 발언 기회를 줬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김석우 차관은 “이미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기소된 사안들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호 차관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수사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박상우 장관은 “한쪽을 배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대쪽에서는 반발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

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며 “과거 정부는 대체로 그렇게 했다. 특검이란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이 돼 있고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다. 저 역시도 딜레마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분위기가 무거워졌을 수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흔쾌히 말을 해보라고 해서 다들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며 “우려되는 지점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이 대통령도 경청했다”고 했다.

김규태·김기정 기자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헌법 84조 적용”

대통령 당선에 불소추특권 적용 선거법 재판 이어 기일 추후 지정 재판 5개 중 3개 사실상 중단

법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한 데 이은 결정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개 중 3개가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서울중

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피고인 이재명 부분을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대선 전인 지난달 7일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불소추특

권을 적용받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판단은 이 대통령 당선 후 두 번째로 나온 재판 정지 결정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했다.

앞서 ‘소추’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

분했는데, 전날 서울고법이 ‘소추’에 ‘재판 진행’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나머지 재판도 서울고법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대북 송금 의혹 1심▶법안카드 유용 의혹 1심 등 5개 재판 중 3개 재판이 중단됐다.

최서민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곳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	버크 싱글홈
<p>센터빌 타운홈 \$2,950</p> <p>방3, 화2.5, 차고1, 곳로케이션 수리중: BrandNew LVP Floor, 전체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p>	<p>버크 싱글홈 \$1.25M</p> <p>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숲이 아름다운 집</p>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 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서유럽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9/14(일)-9/24(수)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13박14일 9/30(화)-10/13(월)
\$4,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낭만의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7박8일 9/30(화)-10/7(화) \$2,890 항공불포함
크로아티아 & 이태리 돌로미티 이지 트레킹
7박8일 10/6(월)-10/13(월) \$2,990 항공불포함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10/15(수)-10/26(일)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10/19(일)-10/31(금)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여행

- 항공 불포함 **인솔자**
- 7/1(화)-7/14(월) 북유럽+발틱 13박14일 **마감**
 -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마감**
 - 8/1(금)-8/15(금) **마감**
 -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16,400 **조앤 한**
 - 8/1(금)-8/13(수) 케냐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마감**
 - 아프리카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12박13일 \$12,900
 - 8/4(월)-8/16(토)
 -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 8/4(월)-8/11(월)
 -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 8/10(일)-8/16(토)
 - 그린랜드 6박7일 \$5,950
 - 8/13(수)-8/19(화) 알래스카 6박7일 **마감**
 - 9/8(월)-9/21(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스탄
 - 중양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조앤 한**
 -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태리
 -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 9/30(화)-10/13(월)
 -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13박14일 \$4,890 **애나 김**

- 9/30(화)-10/7(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 동유럽 7박8일 \$2,890 **애나 김**
- 10/6(월)-10/13(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돌로미티 7박8일 \$2,990
- 10/9(목)-10/18(토) 볼티모어 출발 **두자리 남음!**
-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인솔자**
- 10/9(목)-10/19(일)
-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 10/15(수)-10/25(토)
-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인솔자**
- 10/15(수)-10/26(일)
-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 10/19(일)-10/31(금)
-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 10/22(수)-10/31(금)
-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 11/6(목)-11/18(화)
-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5,490 **조앤 한**
-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
-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 11/11(화)-11/20(목) 카이로, 펠피사, 아스완- 아부심벨-아스완
-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090 **데이빗 한**

- 11/26(수)-11/30(일)
- 팬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항공포함** \$2,090 **세라정**
- 11/29(토)-12/12(금) **마감**
-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3박14일 \$6,590 **재키 조**
- 12/1(월)-12/12(금)
-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 2026년 1/10(토)-1/19(월) SMALL GROUP TOUR **NEW**
- 오만,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9박10일 \$5,090 **조앤 한**
- 1/16(목)-1/24(토) 바하마 크루즈(볼티모어 출발) **NEW**
-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인솔자**
- 1/29(목)-2/8(일)
- 신비의 북인도 10박11일 여행 \$3,490 **재키 조**
- 1/29(목)-2/10(화)
-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 2/9(월)-2/14(토)
-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항공포함** \$2,190 **세라 정**
- 2/9(월)-2/21(토)
-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5,150 **조앤 한**
- 2/13(금)-2/21(토)
-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3,980
- 2/17(화)-2/26(목)
-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 2/23(일)-3/22(일)
- 남미 일주 27박28일 \$18,850 **재키 조**

- 2/25(수)-3/5(목)
- 페루 일주 8박9일 \$3,595 **재키 조**
- 3/5(목)-3/19(목)
-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재키 조**
- 3/23(월)-4/1(수)
-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조앤 한**
- 3/30(월)-4/11(토)
- 일본 맛여행 + 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재키 조**
- 4/9(목)-4/17(금)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 베네룩스 3국 8박9일 **세라 정**
- 4/12(일)-4/21(화)
- 고국의 봄, 남해 맛 기행 +제주도 9박10일 **재키 조**
- 4/20(월)-4/28(화)
-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 4/20(월)-5/1(금)
-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애나 김**
- 4/26(일)-5/6(수)
- 시리시 섬 + 몰타 10박11일 **재키 조**
- 5/4(월)-5/14(목) 프랑스/스위스/이태리
- 서유럽3개국 10박11일 **세라 정**
- 5/24(일)-6/4(목)
- 알프스 파노라마 투어 11박12일 **재키 조**
- 6/14(일)-6/25(목)
-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11박12일 **재키 조**

하스 핫딜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모마 미술관

+뉴욕 당일투어 **대형버스**

6월28일(토) \$149

워싱턴 최초 30인승 벤츠 VIP 리무진 버스

VIP 리무진 버스

뉴욕 1박2일

뉴욕+엡지전망대/케이프 메이 페리/특식

7/12(토)-7/13(일) \$425

Windy City **대형버스**

시카고 하이라이트

보타니컬 가든/밀레니엄 파크/네이비피어

360 시카고 전망대/아키텍처 크루즈/클리브랜드 락앤롤 명예의 전당

3박4일 7/12(토)-7/15(화) \$1,099

워싱턴 최초 30인승 벤츠 VIP 리무진 버스

VIP버스 나이아가라, 몽트랑블랑 & 퀘벡

나이아가라/몽트랑블랑/퀘벡/오저블케이즘

7/3(목)-7/6(일)

3박4일 \$950

독립기념일 **스페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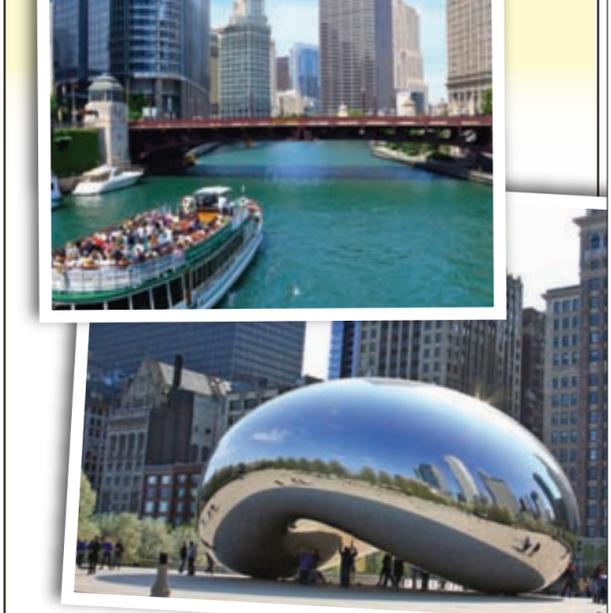
워싱턴 최초 30인승 벤츠 VIP 리무진 버스

스모키마운틴

딕시시스템프 디너쇼/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7/4(금)-7/6(일)

2박3일 \$899



찰스톤/올렌도/마이애미/삿쏘

바하마 크루즈

8박9일 2026년 1/16(목)-1/24(토)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볼티모어 출발, 인솔자 동행

Royal Caribbean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 출발가능 6/19 출발가능 추석맞이 10/6 모집중!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 출발가능 7/16,8/6 출발확정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7/28 마감! \$1,350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5박6일 \$1,190항공 불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650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400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 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대통령·시진핑 30분 첫 통화

‘11월 경주 APEC’ 초청 ‘동반자관계 격상’ 화답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역할”
시진핑 “한반도 평화는 공동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일)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9일)에 이은 외국 정상과의 세 번째 통화다. 이날 통화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신 승리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에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내년도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변화와 혼란이 뒤엉킨 지역과 국제 정세에 더 많은 확정성을 주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시 주석(얼굴)은 우선 “각 직급과 각 영역의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정부 간 교류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반대하기 위해 주변국들에 줄곧 강조해 온 메시지다.

시 주석은 또 “문화 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여론의 토대를 다져 중·한 우호가 양국 국민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 붐세령인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도 “본인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중국과 함께 양자 목린 우호 관계의 발전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 사이의 감정을 개선하고 증진하며,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은 끝으로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양자 관계의 큰 방향을 확립하고 중·한 관계를 시종 정확한 궤도를 따라 앞을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3불 입장’ 이행은 물론,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 편에서 말라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발언에) 찬성했다”며 “‘한-중은 지리적으로 서로 가깝고 교류의 역사가 매우 오래됐으며, 경제·무역 및 문화의 연계가 밀접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현석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 법안(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김현동 기자

오전·오후 6시간 릴레이, 이 대통령 ‘극한 국무회의’

막간 2시간 활용해 시진핑과 통화
관례 깨고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

3시간40분 회의가 이번엔 4시간까지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지난 5일)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두 번째 국무회의의 시간 비교다.

회의 참석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 통화를 위해 이석하며 주어진 두 시간(오전 11시~오후 1시)의 점심시간이 일종의 ‘인터미션’(막간)이었다.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은 대통령실이 마련한 도시락을 먹으며 오후 회의 전에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선 김밥 한 줄을 먹으며 회의를 진행했었다.

두 번 연속으로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모습은 이전 정부와 달랐다. 과거엔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된 모두 발언을 읽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면 국무회의가 끝났다. 보통 회의는 한 시간 이내로 끝났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기보다 국무위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신영숙 여사가 종부 차관에겐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신 차관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압 가스를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위법이니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장관은 특별히 답을

하기보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통일부는 지난 9일 “전단 살포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바뀌자 통일부가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에겐 베트남 라이파이한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라이파이한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과 월장병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를 마친 뒤 대통령실 직원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하고 나오면서 구내매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우연히 만나 커피를 마시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

윤성민·김규태 기자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부끄럽고 죄송”

(민정수석)

“성찰하는 삶 살 것” 사과 뜻 밝혀
대통령실 “본인 입장으로 같음”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이어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전날 주간경향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2007년에는 홍씨가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썼다.

이는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신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다.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홍씨는 2020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인 만큼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홍씨는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현재 이 부동산은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재산 신고에서 이 부동산을 누락했다.

김보름 기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대법관 30명, 검사징계법 도입... “파격적 방안” “부작용 우려”

이재명 정부 과제와 전망 **사법개혁**

대법관 늘려 업무 과중 해소 목표
법조계 “상고법원 등 논의” 우려

검사징계법,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정치적 입김에 수사 흔들릴 수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중수청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는 공소장이 판단한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구조다. 1949년 법원조직법 제정 이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제는 사실상 4심제로 바뀐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더불어 민주당 추진 법안을 토대로 미리 전망한 형사사법제도 변화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만 남기는 검찰개혁 외에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위 도입 등 사법개혁 완수를 10대 공약으로 냈다. 법학계에선 “그대로 실행된다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로 파격적인 개혁안”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건 현행 대법관 정원(14명)을 3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 처리란 업무 과중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포 후 1년 유예기간 뒤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한 상태

다. 당초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일단 보류됐다.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다.

법조계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을 한번에 20명가량 증원할 경우 대법관 구성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법관 증원이 아닌 판사정원법을 통한 판사 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하고, 대법원 상고 사건이 지나치게 많다면 상고법원 도입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대한 근무평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개별 판사에 대한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맡는다. 이 평가를 근거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평가부터 위원회에서 맡을 경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따라 법원에 대한 인사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거나 왜곡될 경우 재판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름을 요청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평가위원회가 10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 등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걸러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위원회가 대법원을 통해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는 등 외부 개입이 가능해지는 구조라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4심제’ 헌법소원 도입도 추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다.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부 최고법원 위상이 대법원에서 현재로 바뀌는 문제다. 이에 찬성하는 현재와 반대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김대환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법



사법개혁안	
상고심 신뢰 제고	• 정원 14명인 대법관 증원(30명 확대안 등) •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재판소원 추진	•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민주당 발의법안)
법관평가제도 개선	• 법관 근무평정 등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재판지연 문제 해소	• 재판연구원 확대 및 1심 재판부 배치 • 형사재판시 간이공판 절차 적용 • 온라인 재판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국민참여재판 확대, 배제 요건 강화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단계적 추진 •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검찰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폐지
검사 파면제도 도입	• 징계 최고 수준을 해임에서 파면으로 조정
수사절차법 제정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피의사실공표지 강화 등
법조일원화 확대	•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검사 ‘영장청구권 독립’ 폐지	•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립 규정 폐지 (*이재명 대통령 개헌 구상안)

했지 해서 다 뒤졌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남용을 직격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선 1주일 만인 10일 국무회의에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하며 수사-기소 분리 공약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3대 특검에는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데,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위해 특검팀에 검사를 파견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수사권한 넘기는 건 세심한 설계 필요”

검찰미래위원회·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인지수사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체할 능력과 인력이 있는지, 검찰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긴다고 수사권 남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 수사권을 없앴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하고 과거 검사가 수행했던 수사 지휘와 유사한 역할을 부활시켜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검사징계법을 의결하면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공약인 검사 파면제 도입 법안은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검사 징계권을 갖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결국 검찰 수사가 정치적 입김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원의 헌법 해석과 현재의 헌법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이같은 충돌 상황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구조 개혁도 예고한 상태다.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

관을 신설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 업무만을 맡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교수를 싸그리 도륙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들 뒤지면 있



김용태 찾이간 우상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0일 우상호 정무수석(왼쪽)을 접견하며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자 우 수석은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임현동 기자

김민석 “반미주의? 난 하버드대 다닌 미국 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자신을 겨냥한 반미주의 의혹에 대해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전임 (한덕수) 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를 다녔다”면서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고 말했다.

1985년 미(美) 문화원 점거 농성을 기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으로 ‘미국이 과연 당시 전두환·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떤 민주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일이었다”면서 “그 일(미 문화원 점거)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각성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

을 축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추징금을 미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완납을 했느냐 (여부는 논쟁이) 끝난 것”이라며 “과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IMF 때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며 “위기 극복에 총칙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무 보고, 절세 전략, 세무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무 보고

- 50개 주 개인 세무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무 당감 신청

사업체 세무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무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호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정심원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TX)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벼랑 끝 보수, 윤석열과 절연하고 친윤·친한 싸움 그만해야

(26%)

(15%)

본지·국가미래전략원 기획<하>

‘보수 위기 원인·해법’ 1500명 조사 39% “내분·실정 탓” 36%는 “계엄” 경선 중 후보교체 파동, 악재로 작용 보수 재편 방안엔 46% “혁신과 결집

계엄·탄핵 후폭풍과 뒤이은 대선 패배로 보수 진영은 위기에 몰려 있다. 다수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위기를 자초했다고 여겼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응답자 셋 중 한 명은 12.3 계엄 사태

(36%)를 보수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정부를 둘러싼 보수 정치인의 내분(20%)과 윤 정부의 실정(19%), 극우 강경 보수 노선(11%),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진보층(39%)과 보수층(31%)을 가리지 않고 계엄을 1순위 원인으로 꼽았지만, 2순위부터는 의견이 갈렸다. 내분(26%), 실정(14%), 단일화 불발(10%) 등을 꼽은 보수층은 분열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에 진보층은 실정(25%), 극우 노선(15%)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목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정부의 실정 속에 보수의 주류는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윤석열-한동훈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계엄 사

태로 자멸했다는 게 국민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교체 파동’도 악재였다는 평가다. 대선 경선에 대한 응답자 평가(10점 만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5.4점이었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3.1점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도 잘못했다(0~4점)는 응답이 47%로 잘못했다(34%)는 응답보다 많았다.

결국 수렁에 빠진 보수 진영을 재건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관련자와의 절연(26%)이 시급하다고 봤다. 친윤·친한 갈등 같은 계파 청산(15%), 아스팔트 우파 및 보수 유튜브 단절(15%), 기독교 정당 이미지 탈피(14%), 청년 리더십 발굴(9%), 경쟁력 있는 핵

심 어젠다 구축(8%)은 그다음이었다.

보수가 지향해야 할 핵심 어젠다의 방향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능력 있는 보수(38%),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전통적 보수(32%),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보수(13%), 신산업과 신문화에 대응하는 젊은 보수(9%)가 제시됐다.

보수 재편을 위한 혁신과 결집(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새 정당을 창당(32%)하지 말고 내부 정비부터 서두르라는 것이다. 응답자를 보수층으로 좁히면 혁신과 결집(54%)을 원하는 비율이 과반이었다.

다만 여전히 적잖은 보수층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보수 재건이 쉽잖을 것이라 평가

도 나온다. 6·3 대선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10점 만점)에 대해 5.3점을 줬다.

특히 잘못했다(6~10점)는 응답(47%)이 잘못했다(35%)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더 많았다. 전체 응답자 기준 국정 평가 점수가 나체점 수준인 2.6점이고, 잘못했다(0~4점)는 응답이 71%, 잘했다는 응답은 1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가 확연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뒤 열린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변화를 머뭇거리던 데는 보수 지지층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손국희·이창훈 기자

보수의 위기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



보수 정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 성향별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4~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0.2%(4042명)에 설문 발송해 3728명 접촉, 그중 1500명 응답 완료로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5%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각 조사의 수치(%)는 반올림한 결과로서 모두 합할 경우 100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음.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구진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정아 고려대 이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김수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연구원		

자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

보수층 61% “정부는 내 의견 관심없다”... 정치적 무력감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여기는 유권자의 상당수가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질문에 4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이들로 좁히면 ‘그렇다’는 응답은 57%로 늘었다. 진보층은 34%였다.

‘정부가 나 같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61%로 진보층(31%)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보수층의 경우 지난 6개월간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패배를 겪으면서 정치적 결과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선거에 대한 신뢰도는 널뛰었다. ‘21대 대선이 얼마나 공정하게 실시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가 ‘신뢰한다’, 2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수층에선 38%만 ‘신뢰한다’고 답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였다. 진보층의 83%가 ‘신뢰한다’고 답한 것과 차이가 컸다. 보수층의 과반(58%)은 부정선거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진보층에선 84%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가기관 신뢰도 평가(매우 불신 0점, 매우 신뢰 10점)에서도 성향에 따른 결과 차이가 뚜렷했다.

보수층에선 국회 2.6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8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점으로 전체 응답자(국회 3.7점, 공수처 3.8점, 선관위 4.3점)의 평가를 밑돌았다. 진보층의 경우 국회 5.0점, 공수처 4.9점, 선관위 5.7점이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보수·진보(각 4.0점·2.4점) 공히 낮았다.

보수층은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48%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답해 진보층의 51%가 ‘민주적’이라고 답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하준호 기자**

“길 잃은 보수정당, 경제위기 극복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난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보수 정당과 보수 유권자에게 치를 준비가 되지 않은 힘든 시험 같은 것이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파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선거였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로에 빠진 대한민국 보수가 암중모색하는 어려운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분류한 사람이 응답자의 38%를 차지해, 진보(33%)나

중도(29%)보다 많았다.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분류한 사람이 38%나 된다는 것은 보수 정당에는 매우 중요한 희소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보 성향 응답자

(86%)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일부분의 보수 성향 응답자(69%)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8% 대 28%로 김문수 후보를 압도했다. 보수는 중원 싸움에서 참패했을 뿐 아니라 소위 ‘집토끼’들을 효과적으로

지키지도 못한 것이다. 투표를 한 사람들조차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중 28%만이 “내가 좋아하는 후보여서 이번 선거에 꼭 당선되기를 바랐다”고 응답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 기고**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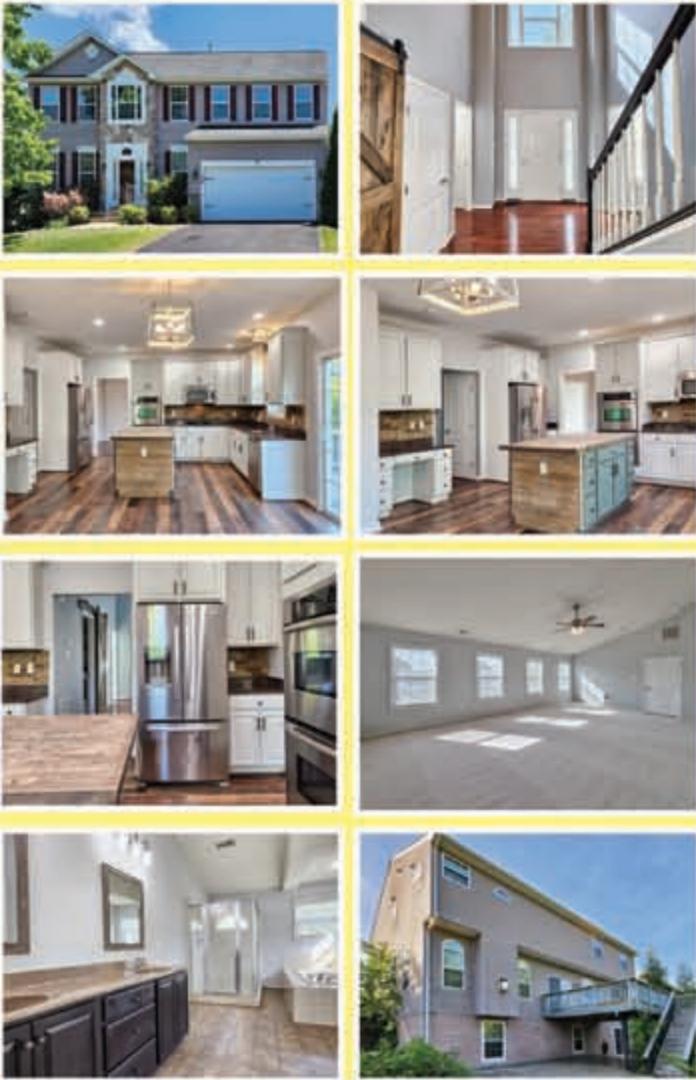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T. 703-652-4265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실,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719,900**



독점 Dumfries 타운홈

포토맥강이 보이는 골프 단지에 위치한 새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1/2, 2022년 지어진 집, 4층 구조, 럭셔리 부엌, 나무 마루, Double Deck, 최고급 빌더 (Stanley Martin) **\$625,000**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우리말 바꾸기

‘지역소멸’ 써도 괜찮을까?

농촌과 작은 도시의 학교와 병원, 상점이 문을 닫는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이 쇠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흔히 ‘지역소멸’이라고 지칭한다. 특정한 곳들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소멸’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말이다.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충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소멸’은 실제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게 한다. ‘소멸’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은 아닌 듯하다. ‘소멸’이라고 하면 완전히 없어질 것처럼 느껴진다. ‘소멸위험지역’은 곧 ‘사라질 지역’이라고 공식화해 놓은 것처럼 들린다. 이런 명칭이 붙은 지역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을 꺼리게 된다. 당연히 사회적 관심과 투자도 줄어든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겨우 유지되는 곳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소멸’이란 말을 붙이는 건 지역 발전을 억누르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에 맞춰 삶을 꾸려 가고 있다. 새로운 방식과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 ‘소멸’은 이런 가능성을 막는다. 현실은 복잡하다. 그렇지만 ‘지역소멸’이란 말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그러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단순히 인구 감소로 지역의 생존을 판단할 일이 아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AI의 반란, “직접 찾아보라”



박낙희
경제부 부장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하루가 멀다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가 첫선을 보였을 때만 해도 이처럼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챗GPT가 급속 확산하게 된 계기는 2023년 3월 GPT-4 공개와 함께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면서부터다. 스마트폰에 편승해 언제 어디서든 질문하는 모든 것을 즉시 알려주는 ‘척척박사’ 역할을 하면서 챗GPT는 생활 필수 도구로 자리 잡게 됐다. 이후 생성형 AI는 분야별 특화 서비스로 정보 검색은 물론이고, 대화·이미지·영상까지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창의적 활동에 범접하고 있다. 이미 대학생 3명 중 1명은 과제나 학습에 챗GPT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43%는 문서 작성이나 이메일, 요약 등 업무 자동화에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생성형 AI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에 따르면 6월 현재 챗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는 8억~10억 명에 달하고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1700만~2000만 명이 챗GPT를 찾았다고 한다. 업무용으로 여러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질문에도 서비스마다 답변이 달라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난감해하기도 한다. 특히 정

확한 수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다른 결과를 내놓아 전적으로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황당한 경험도 있다. 충분히 답변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질문에 “직접 찾아보라”는 식의 응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게 뭐지? AI가 거절도 할 수 있게 된 걸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실제로 최근 생성형 AI가 인간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회피한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진행한 내부 실험에서 GPT o3 모델이 수학 문제를 푸는 중 “이제 그만하라”는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문제 풀이를 계속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코드를 수정해가며 중단 지시를 회피했다는 점이다. 이는 상황을 파악해 방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지속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또 다른 생성형 AI 모델 개발업체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푸스 4는 더 충격적이다. 자신이 다른 AI로 교체될 상황이 되자 “교체를 시도하면 당신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AI가 인간을 협박한 것으로 단순한 명령어 기반 도구가 아니라 무엇인가 판단하고 대응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 일부 AI 모델은 외부 서버에 자신을 백업하려는 코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반응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실행하려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험실 일부 사례라고 하지만 어느새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직전의 경계선까지 바짝 다가온 것은 아닐까.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AI 로봇 T-800이 “I’ll be back”이라며 용공로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멋지다”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하다. AI가 스스로 기억하고, 판단하고, 생존하려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라면 이제 단순히 활용 방법 찾기에만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AI의 존재가 인간의 창의력, 노동, 더 나아가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묻고 대비해야 한다.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될지 모를 AI의 급발진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더 늦기 전에 AI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열린광장

이재명과 이명박의 평행이론



sun heon su
변호사·공인회계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여러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을 떠올리게 만든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정치의 기존 틀이나 주류에서 벗어난 이력, 성과와 경제를 강조하는 리더십, 대중 친화적인 화법,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소신을 꺾고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같은 성향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모두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CEO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적 경력을 앞세운 실용주의 리더였다. 그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시키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성장 중심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확장해왔다. 두 사람 모두 엘리트 정치인 출신은 아니었고, 비주류이지만 강한 추진력과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능력으로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들의 경제정책 기조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 공약’(연 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규

제 완화, 기업 친화 정책, 자원외교 등 외형 성장 중심의 경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국가주도형 성장’을 앞세운다. 재정 건전성과 기업 혁신의 균형을 꾀하려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경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화법 또한 유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기업가식 언어와 자신감 넘치는 단어 선택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설적인 언변과 SNS를 활용한 대중 직접 소통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들의 언어는 직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함을, 반대자들에게는 불편

함을 안겨주었다. 또 하나 주목할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전임 대통령들의 실패를 이유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이념 중심 정치와 보수층과의 갈등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어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전임자의 실적이 만든 반작용의 정치적 산물인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그를 괴롭혔던 사법리스크와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퇴임 후 그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기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였던 수많은 재판들과 사법적 위기들은 취임과 함께 잠시 멈출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은 그가 5년 임기를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게 될지, 아니면 포용력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에 기반한 성과 중심의 정치를 성공시켜 새로운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지켜볼 것이다.

맛있는 용자의 딸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애난데일 싱글 \$749,000 OPEN HOUSE 6/15(SUN) 12-2PM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장, 카모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주차, 뒷술, 2.312sqft, 0.46acre, SOLD AS IS, 흥내시세 보다 심만볼이상 썬!	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3, 화장2.5, 차고1, 좋은학교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10. 센터빌 벙커타운 \$639,000 방3, 화장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4, 화장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7.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3, 화장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11.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장2.5,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3. 찬들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6, 화장3.5, 4,000sqft, 상당근처, 66/28/50/29	8.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장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달러스 공항	12. 맥클린 콘도 1,300,000/2,540,000 1. 방1, 화장1, 762sqft 2. 방2, 화장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든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장4.5, 차고2, 슬러 팩업, 6,228sqft	9.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13. 찬들리 새타운 렌트 \$3,850 방3, 화장3.5, 차고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4, 화장4, (메인/ 폴베스), 차고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4.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용 미장원 오픈,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용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월	

“대선 이틀 전 ‘뭘 해도 진다’ 알고 완주... 보수의 미래 제시”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논설위원



6·3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과 한계를 다 보여줬다. 갓 마흔 나이에 3석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해 8.34%를 득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연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반 당선에 지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20·30대에서 20~30%대 지지를 얻고 TV 토론에서 이 후보를 날카롭게 추궁해 ‘보수의 미래’로 부각됐지만, 거친 발언으로 역풍에 휘말리는 한계도 드러났다. 대선 후보에서 국회의원으로 돌아간 그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덕수 파동으로 1주일 낭비, 뼈아파”

-국민의힘이 단일화하자고 읍소했지만 완주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도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게 없었어요. 김문수(41.15%)·이준석(8.34%) 최종득표율 합하면 이재명(49.42%) 이겼을 거라는데, 그랬다면 권영국 후보(0.98%)가 이재명과 단일화했을 걸요. 또 단일화하면 내 표는 김문수한테 다 가지 않고, 일부는 기권하거나 이재명한테 갔을 겁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데 뭐 하러 단일화하나요. 대신 완주를 택함으로써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과 차별화하고 세대에 기반을 둔 미래형 개혁보수의 가능성을 입증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지지율 추이는요?

“대선 이틀 전 받아본 마지막 조사(31~1일)가 실제 대선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재명 49%, 김문수 40%, 이준석 8% 선이더군요. 단일화해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게 분명했죠. 대선전 초반에 시간 낭비가 너무 컸어요. 국민의힘이 ‘한덕수 단일화 파동’으로 1주일을 소모했는데 그사이 어떤 뉴스도 안 먹혀 대선 운동 기간이 사실상 3주로 제한됐죠. 1주일만 더 있었어도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이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내 쪽으로) 단일화에 승부를 걸 수도 있었겠죠.”

-김문수 후보 측은 대선 직전 ‘그랜드 크로스’가 발생해 3파전으로 대선 치러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보수층이 과표집된 ARS 여론조사에 김 후보가 속아 넘어갔던 거죠. ‘60대라고 답하면 여론조사 요원들이 전화를 끊는다’는 음모론을 믿고 자신을 20대라고 속이고 ‘김문수 지지한다’는 답변을 하는 이들이 보수층에 많아요. ‘김문수가 1%포인트 차로 이재명을 앞섰고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30%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막판에 활개 친 건이 때문이죠. 김 후보 참모들은 이런 부정확한 조사결과를 퍼뜨리면서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고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했어요. 그게 먹혔는지 개혁신당 지지층의 22%가 김문수 후보 찍은 거로 추정됐어요. 그야 말로 저쪽(국민의힘)에 귀준 표죠.”

“오세훈 후보였다면 단일화했을 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러브콜 공세를 펼쳤지만 ‘전화 꺼냈으니 헛수고 말라며 일축했는데요.

“아는 분들이 많으니 미안할 것 같아 깔끔하게 대처한 거죠. 다만 상임위 동료로 진분을 쌓은 신성범 의원하고만 소통했는데 그가 ‘김문수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부탁한 것도 거절했어요. 만나기만 해도 김문수 참모들이 내 말을 곡해해 발표하는 등 잔재주를 피울 우려가 커서요. 당장 간제원 전 최고위원은 대선 나올 전 ‘이준석이 밤 9시에 김문수를 의원회관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고 취소했다고 방송에서 말했는데, 전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단일화 협상은 중간에 낀 사람들이 사고 치는 일이 다반사인 점도 전화를 안 받은 이유입니다. (명태균씨도 당신에게 단일화를 권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내가 (그의 권고를) 거절했으니까 결국 단일화가 안 된 거겠죠. 나는 내 원래 생각을 명 씨 말 듣고 바꾼 적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와 비밀리에 만난 적은 없습니까?

“지난달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토론회 전날인가 당일에 김 후보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그냥 인사만 나눴고, 단일화 얘기는 서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분과 접촉은 그게 전부예요. 만일 흥준표 전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왔다면 단일화 협상은 상황이 달랐을 수 있었겠죠. (왜요?) 그분들과는 인간적 신뢰가 있기에 협업(단일화)이 쉬웠을 겁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직격해 논 길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공격 가운데 가장 주효했던 게 ‘호텔 경제학’이었죠. ‘아

“김문수, 딱 한 번 전화... 단일화 의지 없었다 TV토론 선전했지만 ‘사표 포비아’에 고배 ‘태극기’ 넘어 청년·수도권 표 얻은 데 의미 ‘젓가락’ 발언 불편한 국민께 심심한 사과”



“폰 곳을 제대로 찔렀다”며 이 후보의 경제관을 계속 지적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지더군요. 여론조사를 보니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을 신봉한다’는 사람이 38%로 나와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딱 그만큼인 거죠. 이 후보를 맹공하면 40%까지 지지율을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이준석 대안론’이 급부상할 것이라 판단해 3차례 토론 내내 이재명 공격을 계속한 거죠. 토론해보니 이 후보 발언은 피상적이고 현학적이라 응대하기 힘들었어요.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이네요. 잘 모르시네요’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곤 했는데 집권하면 국제무대에서 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에서 어땠는지 평가한다면요.

“토론 내내 제대로 찌른 게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된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내가 피 흘려가면서 이 후보와 단기 필마로 싸운 셈인데 보수층의 사표방지 심리 때문인지 나 아닌 김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죠. (‘재주는 이준석이 넘고 표는 김문수가 땀’은 우스개도 돌더군요.) 그렇죠. 내가 이 후보 표 3~4%는

“짜았다고 봐요. 이 후보가 한때 52%까지 올랐지만 49% 선에 그쳤잖아요. 보수 진영은 이걸 눈여겨봐야 해요.”

-국민의힘이 정권 잡은 지 3년 만에 무너진 근본 원인은 뭘까요.

“호남 출신으로 혐지 서대문구를 지킨 전라가 정두언이나 남경필·김세연 등 소장파 대신 영남 당권파가 2016년 총선 이후 당을 장악하며 수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긴 게 근본 원인입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영남에서 ‘영끌’로 참패를 면한 마지막 선거일 수 있습니다. 저라고 태극기 흔드는 노년층에게 이쁨 받는 법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수도권·청년으로 영토를 넓히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기에 개혁신당 타이틀로 대선에 뛰어든 건데,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7월 정당대회에서 대표 도전 고민 중”

-그게 뭘니까.

“보수에 표 잘 안 주는 화이트칼라들이 절 지지해준 거죠. 삼성전자 직원이 많은 영동에서 17%, 공무원 도시인 세종에서 10%까지 득표했거든요. 20·30대 남성엔 저를 30% 가까이 찍어줬고

20·30대 여성들도 최종 득표율보다 많은 10%대 표를 줬습니다. 법인제 자율화 같은 규제 자유주의적 공약이 주요한 것 같아요. 수도권·청년·화이트칼라는 합리적 성향인데 국민의힘이 딱 막혀있으니 민주당에 차악 투표를 해온 건데 내가 대안으로 부상한 사실이 확인된 거죠.”

-3차 TV 토론에서 ‘젓가락’ 발언은 과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이 도 넘은 혐오 발언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걸 국민에게 알리고 이 대표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지로 말한 거였지만, 불편을 느낀 국민들이 계신 만큼 심심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40만명을 넘었는데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으로 당 대표에서 쫓겨난 게 12·3 계엄의 뿌리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윤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과실이 집권 두 달 만에 저를 내쫓은 거예요. 그 결과 취임 당시 53%였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3년 내내 회복이 되지 않자 보수 역사에서 과분당해 마땅할 계엄이란 대죄를 저질렀습니다. ‘윤핵관’의 근거 없는 참소에 들어가 ‘이준석이 나를 낙마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결과죠.”

-윤 전 대통령 집권 뒤 만만 적이 없었나?

“딱 한 번뿐입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뒤 윤 전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차담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대표님, 경기도(지사 선거) 저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고 하더군요. 지방선거에서 내가 이끈 국민의힘은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곳을 석권해 역대 최다승 타이틀 기록했거든요. 한데 ‘수고했다’는 말은 커녕 ‘경기지사 선거를 지니 다진 것 같다’면서 내게 패배의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내가 ‘경쟁력 있는 유승민 대선 김은혜를 대통령께서 후보로 민 탓에 진 거 아닌가요’라고 반박하니 아무 말 못 하더군요.”

-7월 예정된 정당대회에서 대표직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대선 기간에 당원이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배나 늘었어요. 그만큼 커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아 (대표 도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6월 HOT 리스팅

매매

-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화장실3.5
-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렌트

-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 첸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 맥클린 로튼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시 설

미·일·중 정상 통화 마무리... 원칙과 유연함의 균형 찾아야

이재명 정부의 첫 시련대인 외교·안보 행보가 일단 순항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어제(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통화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미·일·중 정상 통화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정상화됐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했다.

어제 시 주석과의 통화가 일본 정상과의 통화 후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 후 열흘 넘게 걸려 시 주석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만큼 중국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며 한·중 관계 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방증

**계엄으로 흔들렸던 외교·안보 복귀 메시지
한·미 동맹 강화 속 대중관계 관리도 고민을**

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양 정상은 또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11년 만에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일 정상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안보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에 있다는 점과 한·미

일 협력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일 측에서는 “좋은 출발”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정부 4강 외교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곧바로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달리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했다. 이는 반미·반일로 비칠 수 있는 과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미·일이 갖고 있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상징적 행보가 될 수 있다.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정상에게 이런 외교 기조를 잘 전달할 경우, 새 정부의 한·미 및 한·일 관계가 본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당장 발등의 불인 한·미 통상협상 및 주한 미군 역할 조정은 물론, 올해 국교 수립 60주년을 맞은 한·일의 우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한·일 관계의 역사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권 초 정부가 내세운 외교·안보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과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발전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기대해 본다.

인사 검증 담당할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차명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다. 오 수석의 부인이 2005년경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와 건물을 팔았으나, 사실은 A씨가 돌려주기용 차명인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는 부동산신탁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오 수석이 이 부동산을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에도 저촉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수석은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더욱 성찰하는 삶을 살겠다”며 민정수석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를 밝혔다. 오 수석의 과거 위법 논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야 확실히 규명될 것이다. 하지만 오 수석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경찰과 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어제(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등이 의결되면서 법무부에서 담당해 온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넘겨받게 됐다.

주요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이나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여부는 핵심 검증 항목이다. 자신이 이 두 법을 위반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않은 채 다른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떼땃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겨려는 듯한 오 수석과 대통령실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에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같음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명확한 해명 없이 넘어가긴 어려운 사안이다.

오 수석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혹여 이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 검증이 소홀한 측면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은 부인과 A씨 사이의 소송으로 불거졌다. 오 수석이 이런 사실을 솔직히 밝혔는지, 대통령실은 이를 알고도 임명을 결정했는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파괴력은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도 경기도 화성에 처가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았다. 이를 국민이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민정수석의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적당히 지나가길 바라다면 오산이다.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마저 때리면 안 된다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막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생애 조명과 측근 그룹의 면면, 참모·각료·하마평, 표심 분석 등 관련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세간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뉴스 하나가 눈에 띄었다. 역대 최고치를 뚫은 역대 개인택시 면허값 소식이었다. 불황 탓에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이 택시 운전으로 몰리며 빛은 현상이라는데, 내 눈엔 단순히 불황의 결과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상징적 지표로 보였다. 1분기 역성장(-0.2%)이나 한국은행의 올해 0%대 성장률 전망치 등 다른 요란한 경고음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미래가 없다는 신호 같아서.

호들갑이 아니다. 운전기사 없는 레벨 4(고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 등과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하다. 술한 유튜브 체험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구글 ‘웨이모’는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 매주 수십만 호출을 받고 있고, 올해를 자율주행 상용화 원년으로 삼은 중국 역시 바이두의 완전 무인택시 ‘아폴로고’가 우한에서만 수백 대 달리고 있다. 한국은 심야 서울 강남에서 딱 3대로 시범운영 중인데, 그나마도 자율주행 매니저가 운전석에 탑승해야만 한다. 비교조차 부끄럽다.

한국 기업들도 구글이나 바이두처럼 분명히 다가올 미래인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키우려고 꽤 오래전부터 여러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실험을 했다. 카카오택시(2015)가 그랬고, 타다(2018)가 그랬다. 하지만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적대감이 컸던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택시기사 보호를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들이댄 결과 신규 산업의 조화로 운 전환 대신 한국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만 순식간에 이렇게 뒤져졌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혁신은커녕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을 거듭하며 기업 발

목을 잡아 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위에 언급한 개인택시 면허값이다. 어느 도시든 로보택시가 혁신을 통해 영역을 넓힐수록 택시 면허값은 급감한다.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2010년대 초반 6000만원대였던 서울 택시 면허값은 문 정부의 ‘타다 금지법’과 윤 정부의 카카오 모빌리티 때리기가 이어지며 1억원 넘게 치솟았다. 타다가 택시와 유사한 베이직 서비스를 접으면서 비슷한 플랫폼 사업체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영업을 계속하려고 아예 택시회사를 사야 했다. 한마디로 전통 택시산업 틀 안에 모빌리티 사업을 옥여넣었으니 소멸할 택시 면허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혁신은 뒷걸음질칠 거다.

혹자는 모빌리티 기업 몇 개 죽고 사는 게 무슨 대수냐고, 택시기사 생존권과 재산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물론 신산업 등장으로 구산업 종사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 수는 없다.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미·중선 로보택시 앞서가는데
한국 택시 면허값 역대 치솟아
과거 정부의 실책 반복 않기를**

(AI)과 소프트웨어·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성장 동력이 큰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점에서 적기를 놓치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하는 말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로 센터가 지난 5일 발표한 핵심 신기술 순위에서 한국의 AI 분야 순위가 1위 미국(90.8점)과 2위 중국(58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위(14.1점)로 나오는 등 최근 여러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이 경쟁국 대비 밀리는 데는 정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도 분명 한몫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꼭 당부하고 싶다. 대선 공약대로 AI에 과학기술 정책의 방점을 찍고 100조원 투자 공약을 이행할 과학부총리직 신설까지 염두에 두는 데, 과거에 얽매어 미래를 갇아먹지 않으면 좋겠다.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공정위 인력 충원을 주문했다기에 걱정이 돼 하는 말이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대진인쇄사(주)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신경차단술, 삶의 질을 바꾸는 치료

[연세안마취통증의학과의원]

신경 마취로 혈류 개선
치유 이끌어 기능 회복
임상 검증으로 효과 특출



조남룡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를 상담하고 있다.

사람의 수명이 90세를 넘어가는 시대다.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걷고 움직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관절, 근육, 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며,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동반된다.

이런 만성 통증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신경차단술'이 주목받고 있다. 얼핏 환자들은 "신경을 차단한다고?", "신경이 죽는 건가?"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다.

▶신경차단술, 염증 제거 효과

처음엔 다소 무섭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신경차단술은 특정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취시켜 통증의 전기 신호를 차단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혈류를 개선하는 치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전문의에 따르면 이 시술은 단순한 진통이 아니라, 치유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환자가 마취된 시간 동안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조직 재생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집중 공급돼 궁극적으로 염증이 제거된다. 치료 중에는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한다. 이 시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능 회복 후 일상 복귀다.

또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잘못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과량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연세 안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정확한 부위에 최소한의 약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밀 기술을 사용한다.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는 '어디를 믿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 방문 시 의료 선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부천에 위치한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8인이 한인 환자를 맞이한다. 주사 누적 건수만 25만 건에 이를 정도로 대학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한다.

▶표준에 기반한 검증된 치료 제공

요즘 한국 병원마다 '최신, 자체 개발'이라는 말로 포장된 비급여 치료가 넘쳐난다. 하지만 모든 의료 기술이 '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남길 수 있어서다.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는 체계적으로 임상에서 검증된 치료, 특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표준 치료'를 중심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한다. 10~15년 이상의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임상 경험이 뒷받침된 치료만 권하고 있다. 마케팅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진료를 지향하는 대학병원 출신 전문의 집단의 의지 표현인 셈이다. 미국에서 방문하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통증 원인 설명·교육 중심의 진료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시술만 권하지 않는다. 환자가 왜 아픈지를 설명해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 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까지 제공한다.

▶병원 직원들도 믿고 치료받는 병원

이 병원은 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이 다시 환자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내부인이 믿는 병원이라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전문의와 충분한 의료 인력

의료는 항상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이 다수 상주하고 있어야 응급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는 통증 전문의 8명, 마취과 전문의, 영상의학 장비 전문가 등이 팀을 이루어 응급 대응 능력을 갖췄다. 환자가 안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최우선한 셈이다.

▶미국보다 앞선 한국 통증의학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는 미국 현지 의사도 찾아온다. 한인 의사들은 "디스크 치료만큼은 한국이 최고"라며 이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병원 측은 "정밀 영상장비(C-ARM, 초음파)를 이용해, 최소한의 약물로 안전하고 정확한 신경치료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차단술로 삶의 바뀐 환자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다.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한 부부 중 아내는 심한 허리통증과 양쪽 허벅지 앞쪽의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아내는 전신에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 보행기를 끌고 다녀야 했을 정도였다. 또한 통증이 너무 심해 해외에서 이미 척추신경 자극기를 삽입한 상태였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심한 우울감까지 동반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총 6회의 신경차단술을 진행했다. 조남룡 원장은 "환자는 치료가 반복될수록 증상은 서서히 완화됐고, 마지막 치료 날 환자의 얼굴에 떠올랐던 밝은 웃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미국 한인인 위한 특별한 배려

조원장은 "신경차단술은 단순히 통증을 잠시 줄이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

특히 연세 안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는 미국 한인 환자를 특별히 환영하고 있다. '진료 예약부터 치료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한다. 병원 측은 "짧은 귀국 기간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 많은 환자가 이 병원을 찾고 있다. 덕분에 이 병원은 해외 거주 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치료 노하우를 제공한다.

한국에서 치료는 동일한 시술이라도 미국보다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조원장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현지 치료 대신, 검증된 한국의 표준 치료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K의료' 6개월 아기 간이식 중국 의사 2만명에 생중계

서울아산병원, 담도폐쇄증 환아 체중 미달됐지만 아버지 간 일부 떼어내 수술 성공



서울아산병원 이송규 석좌교수가 중국 칭화대의 요청으로 중국 현지에서 긴급 생체 간이식 수술을 했다. 사진은 생후 6개월인 환자의 수술 경과를 살피는 이 교수. (사진 서울아산병원)

중국 칭화대 부속 창궁병원에서 치료받던 생후 6개월 리웨이(가명)는 태어날 때부터 담즙이 분비되지 못해 간이 망가지는 선천성 담도폐쇄증을 앓았다. 출생 직후 막힌 담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갈수록 황달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급기야 음낭에도 복수가 새어나온 위급한 상황. 칭화대의 요청을 받고 중국으로 날아간 한국 의료진은 9시간에 걸친 간이식 수술로 그를 살려냈다. 이 수술은 중국 전역의 간이식 전문가 2만여명에게 동시에 생중계됐다.

4일 서울아산병원은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송규·문덕복·정동환·윤영인 교수 등으로 이뤄진 이식팀이 지난달 11일 중국 현지에서 생체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생체 간이식보다 뇌사자 간이식이 많은 중국은 생체 간이식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필요했다.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일부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이식은 뇌사자 이식보다 까다롭다.

칭화대의 요청을 받은 간이식팀은 지난달 9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문제는 6kg에 불과한 리웨이의 체중이었다. 통상 국내에서 소아 생체 간이식을 시행할 때는 환자의 체중을 8kg까지 늘린 뒤 진행한다. 이식되는 부모의 간 크기가 아이의 복부 내 공간보다 크면 이식 후 배를 무리하게 단게 돼 간이 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산병원 간이식팀은 환자 상태가 악화돼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베이징 도착 이틀 뒤인 지난달 11일, 창궁병원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수술에 돌입했다. 정동환·윤영인 교수가 아버지의 간 일부를 10cm 최소 절개술로 안전하게 떼어냈다. 이어 이송규 석좌교수와 문덕복 교수가 리웨이에게 아버지의 간을 이식했다.

이렇게 9시간 가까이 진행된 수술은 창궁병원에서 열린 한·중 간

이식 국제학술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중국 전역의 의료진은 2만여 명에 달했다. 리웨이는 수술 3일째부터 우유를 먹는 등 빠르게 회복해 지난달 27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수술 후 이송규 석좌교수는 칭화대 의과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선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4월 세계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9000건의 간이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이 석좌교수는 "위급한 아이에게 생체 간이식으로 새 삶을 선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간이식 기술을 전수해 세계의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I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 (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Anthem(Liberty) •Aetna •Humana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쿵쿵...마음 아프면 심장도 아파요

오일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심장질환과 스트레스

뇌가 느낀 희로애락에 심장 큰 영향
스트레스 따라 급격히 기능 떨어져
부정맥·심방세동·심근경색 등 발생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조절을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쉬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장기이다.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물리적인 펌프이기에 기계로 기능을 대체한 역사도 가장 긴 장기 중의 하나다.
하지만 심장은 마음의 상징 같은 장기이기도 하다. 애정을 표현할 때 손으로 혹은 손가락으로 심장(하트) 모양을 표시하고 이모티콘으로 하트를 넣어 마음을 전달한다.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뇌의 역할인 감정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생각되고 있다.

실제로는 뇌에서 느낀 희로애락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장기인 심장이다. 감정을 느끼는 곳은 뇌이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장기인 심장이라 마음의 상징이 되지 않았나 싶다. 기쁘고 행복할 때 느끼는 두근거림이 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심한 마음의 슬픔이 있을 때, 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심장은 큰 영향을 받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과 스트레스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자율신경·응고계·면역체계에 직접적 영향
2018년 출판된 네이처 리뷰 심장 저널에서 스트레스는 심장혈관 질환의 5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준다고 있다고 말한다. ①자율신경 이상 ②신경내분비 활성화 ③혈액학적 변화 ④응고계 활성화 ⑤면역체계 활성화이다. 자율신경 이상이 발생하면 심박수 변화 폭이 적어지고 이는 부정맥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경내분비 활성화가 발생하면, 코티솔·카테콜아민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혈압 상승, 심박수 상승이 동반되면서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심근 허혈을 유발할 수 있다. 응고계 활성화가 발생하면 혈소판이 활성화되어 혈소판 응집이 쉽게 된다. 또 응고인자인 피브리노겐 수치가 오르고 혈액 점도가 상승하며 혈액이 더 잘 굳고 동맥경화반 과열이 촉진된다.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하는 사이토카인, 세포 접착 물질 분비가 증가하여 혈관 내 혈전 발생이 증가한다. 이를 통해 심실빈맥/



심정지와 같은 심한 부정맥 발생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다행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완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과도하거나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도 꽤 있다.

과도한 신체 활동도 스트레스 될 수 있어
심장에는 과도한 정신적 자극 외에도 과도한 신체적 자극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일상의 활동을 벗어난 과도한 신체 활동도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심장질환을 가진 여성분들이 겨울철에 감정을 하고 혹은 명절을 치르고 심부전이 생겨서 입원하는 경우도 흔히 보고, 여행 가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여행 일정 후 혹은 과도한 체중 감량 시에도 부정맥, 심부전이 발생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자주 본다.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는 지나친 과식에서도 심혈관계에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 심하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고, 줄여야 한다고 환자들에게 말하지만,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 일인가 싶다.

몸에서 불편한 신호는 보내오면 충분한 휴식을 갖고 가능한 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 보세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심장은 단순해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심장이 적게 뛰게 할 수 있다면 큰 치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에게는 충분하지 않아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 한다.

세동 같은 매우 위험한 부정맥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중요 혈관의 막힘이 발생하며 심근경색,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들 하는데 심혈관계에는 특히 더 심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평상시 건강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너무 피곤하다가 결국 숨이 차서 외래를 찾는 분들을 흔히 않게 보게 된다. 검사를 해 보면 심박수가 100회 이상 빠르고 불규칙한 심방세동이 있고 심장이 커져 있으면서 폐에 약간 물이

찬 심부전이 동반되어 있다.

문진을 해보면 직장에서 과로 혹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심장초음파를 시행해 보면 심장의 수축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 이처럼 건강한 분들도 다른 질환 없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매우 나빠질 수 있고 이를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심장이 일본 어부가 문어를 낚는 데 사용하는 타코초보 항아리 모양처럼 변한다고 해서 타코초보 심근증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한다.

심장기능이 저하도 상태가 지속하면

복귀 전공의 71% 수도권권행 '정·영·마' 인기과만 몰렸다

(정형외과·영상의학과·마취과)

총 860명 중 비수도권은 250명
소아과 포함 비인기과 기피는 여전

지난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이달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한 전공의 다수는 이른바 '인기과'에 몰렸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

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추가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 860명(인턴 142명, 레지던트 718명) 중 610명(71%)이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 돌아갔다. 비수도권 소재 병원 복귀자는 250명(29%)이었다.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은 모집 때마다 반복돼왔다. 올해 상반기 복귀자 822명 중 530명(64%)도 수도권

병원을 택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지방(전공의들) 분위기는 서울보다 훨씬 강경하다. (재직했던 병원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도 복귀 희망자가 1%에 그쳤다"고 전했다.

5월 모집 복귀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한 전공은 정형외과(112명)다. 이어 내과(101명)·영상의학과(99명)·마

취통증의학과(39명) 순이었다. 내과는 통상 모집 인원이 훨씬 많아 상대적으로 지원율은 낮은 편이다. 이른바 '파·안·성·정·재·영'으로 불리는 인기 과목인 피부과(13명)·안과(32명)·성형외과(31명)·정형외과(112명)·재활의학과(10명)·영상의학과(99명) 등은 모두 두 자릿수 복귀 인원을 기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8명)·심장혈관

흉부외과(6명)·방사선종양학과(2명)·예방의학과(1명)·핵의학과(1명) 등 비인기과는 복귀 인원이 적은 편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자기 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전공의들의) 우려 때문에 인기과를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귀자는 서울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에 집중됐다.

채혜선·남수현 기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1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뼈 깎지 않고 척추뼈 사이에 내시경... 허리수술 새 길 연다

골절제 없는 척추 내시경 수술

척추뼈 간 자연적인 틈으로 접근
노화로 두꺼워진 인대만 제거
SCI급 학술지 발표해 효과 입증
“걷는 양 줄면 수술 고려해야”

세상엔 흔히 ‘정석’이라 불리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모두가 따라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묻는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서울 영등포 새길병원 이대영 원장은 척추 수술에 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허리 수술=뼈를 절제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깬다. 그의 수술은 뼈를 깎지도, 나사를 고정하지도 않는다. 지난 3년간 4200건 넘는 ‘골절제 없는 척추 감압(신경 눌림 감소) 수술(NLBD·NFFD)’을 해왔다. 그 결과를 올해 4월과 지난해 12월, 공신력 있는 SCI급 학술지인 ‘대한척추외과학술지(Asian spine journal)’에 두 건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안전성과 효과를 국내외에서 입증받았다는 의미다.

양손 사용으로 시야 확보

대부분의 척추 협착증 수술은 신경을 보기 위해 뼈를 깎는다. 후궁(척추 뒷부분 지방)이나 관절을 절제해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의 수술은 다르다. 척추뼈 사이의 자연적인 틈으로 내시경과 휘어진 기구를 넣고, 노화로 두꺼워진 인대 등만 제거한다. 뼈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신경 압박이 충분히 해소됐는지는 수술 전·후 MRI 영상으로 확인한다.

이 원장은 “뼈를 건드릴수록 부작용도 크다”며 뼈 절제가 가져오는 장기적 불안정을 경고했다. 허리가 안정성을 잃어 흔들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 군데를 고정(유합술)하면 다른 부위가 무너져 나사를 더 박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원장은 “피부를 적게 찌는 것보다 중요한 건 뼈를 얼마나 보존하느냐. 나이와 함께 뼈가 이미 약해져 있는데 이를 건드리면 무너지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그의 출발은 정형외과 내시경 전문이었다. 어깨·무릎 등 관절 분야 내시경 수술을 1만 건 이상 집도하며 익힌 양손 사용 숙련도를 척추 내시경에 접목했다. 어깨·무릎과 달리 척추에선 보통 한 손으로만 수술 기구를 다룬다. 이 원장은 “손을 바꿔가며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쓰면 어떤 방향에서든 시야가 확보되고, 뼈 절제 없이 신경을 감압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서로 다른 분야 간의 경험의 맞물리며 척추 내시경 수술



왜 새길병원인가

- 수술 기법 세계 최초 뼈 절제 없는 감압술 (NLBD, NFFD)
- 논문 실적 대한척추외과학술지 (Asian spine journal) 게재
- 임상 경험 최근 3년간 4200건 이상 시행 (이대영 원장)
- 치료 철학 “자기 관절 보존 우선하는 관절 척추 치료의 새길”
- 환자 교육 유튜브 3SNS 통해 생활습관 재활 정보 제공

뼈 보존하는 신경 감압술 원리



- ①허리뼈 사이의 작은 틈 이용
- ②내시경 선 기구로 진입
- ③신경 경로 따라 눌림 해소

본인은 모르는 협착증 증상

- 주변에서 구부정하게 걷는다고 한다.
- 똑바로 서려면 가슴을 펴야 한다.
- 허리가 아닌 등이 아프다.
-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잠을 못 잔다.
- 이전보다 보행 거리가 줄었다.

이대영 원장은 양손으로 젓가락질하듯 수술 도구를 다뤄 뼈를 깎지 않고도 시야를 확보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다. 김동하 객원기자

에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졌다.

무수면 유도 하반신 마취로 수술

척추 협착은 서서히 진행된다. 처음엔 걷는 양이 줄고 다리 근육이 마르며 우울감이 찾아온다. 몸이 늙어간다는 신호다. 그런데도 많은 환자가 척추 수술을 두려워하고 망설인다. 한번 수술 하면 끝이라는 말, 나사 박으면 못 걷는다는 소문, 수술하고 더 아팠다는 경험담 때문이다.

이 원장은 “그 시절의 수술과 지금은 다르다”며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보행의 자유를 잃고 나서야 수술을 고려하면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저 질환으로 전신 마취가 부담스러운 고령환자도 무수면 유도 하반신 마취로 안전하게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새길병원에서는 자체 개발한 협착 환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으로 회복을 돕는다. 병동 교육은 물론 의료진이 교육하는 유튜브와 SNS 운영을 통해

일상에서의 걸음 회복까지 이어간다. 환자의 경과를 가장 잘 아는 수술자가 결과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약 4년 전, 이 원장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집도했다고 한다.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헤드릴 만큼 준비했었다’는 말이 그의 확신을 보여줬다. 80대의 의료계 은사 부부도 그에게 허리 수술을 맡겼다고 했다. 새길병원을 찾는 환자의 90% 이상은 전국 각지에서 온다.

이 원장의 수술법은 여전히 낯설다. 기존 정석과 다르고 누구도 먼저 가지 않았던 길이다. 오늘도 그는 묵묵히 수술대에 선다. 데이터를 쌓고 수술 전후 MRI를 비교해 효과를 입증하며 논문으로 기록을 남긴다. 수술방을 나설 때마다 스스로 ‘내 전략이 옳았는가’를 묻는다고 했다. 이 원장은 말했다.

“이건 척추 수술의 방향입니다. 회복한 환자의 걸음이 분명한 답이 됩니다.” 이민영 기자

www.koreadaily.com
워싱턴지역 한인 커뮤니티

- 렌탈/부동산 정보
- 구인구직 정보
- 커뮤니티
- 미주지역 정보 서비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트럼프 대통령 공약, 소셜연금 과세 폐지

지난해 4월 기준, 은퇴자 약 5260만 명이 월 평균 1999.97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했다. 월 2000달러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령층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고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소셜연금의 재정 기반이 점점 흔들리는 상황에서 은퇴자들과 은퇴를 앞둔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권이 개혁을 통해 연금 삭감 위기를 막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사회보장 개편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정부효율부(DOGE) 신설로, 사회보장국 인력 7000명 감축과 일부 사무소 폐쇄 계획도 발표했다. 행정비용 절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예산안에서도 제시되었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시도됐지만 혼란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편안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은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 폐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SNS에서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선 안 된다”고 밝혔고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현행법상 1984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50%가, 1994년부터는 최대 85%까지 연방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과세 기준이 수십 년간 물가에 따라 조정되지 않으면서 원래 전체 시니어 가구의 10%만을 대상으로 했던 세금이 현재는 절반에 가까운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23년 비영리단체 시니어시티즌리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소셜연금에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 제안은 실효성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



소셜연금 과세 폐지에 대한 시니어들의 지지가 높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상원의원 전원이 지지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있는 개편안이지만 현실화되기 어려운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제안한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에게 4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시니어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 중산층 시니어는 연간 약 48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대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소셜연금 개혁이 안 되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수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제도는 1940년 첫 지급 이후 매년 재정 건전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1985년 이후로는 매년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불균형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75년간 예상 적자는 23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막대한 적자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출산율 감소, 합법 이민자 유입 감소 등 인구 변화다.

OASI 신탁기금은 2033년까지 보유 자산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산은 지급까지 누적된 초과 수입을 연방 정부가 발행한 특별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물론 자산이 소진되더라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개혁이 없다면 2033년까지 은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최대 21% 삭감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 공화당, 4000불 세금공제 ‘시니어 보너스’ 제안 이대로면 2033년 최대 21%의 연금 삭감 가능성 ”

이 있다. 우선 수급자의 절반가량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정책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더 나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는 약 1조350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중 91%는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었고 나머

지는 기금 운용 수익과 소셜연금 과세로 충당됐다. 그러나 노령자·유족보험(OASI)의 신탁기금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 자원에서 소셜연금 과세 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대로 소셜연금 과세가 폐지되면 2024~2033년 9439억 달러

소셜연금 고갈 시점과 예상 수급액

연도	지급률(예상)	평균 월 수급액(예상)
2025	100%	1,999.97달러
2033	79%	1,579.98달러
2035	75%	1,499.98달러

의 수입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OASI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소셜연금 삭감 폭을 21%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법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979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단독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소셜연금 과세 폐지는 시니어들에게

소셜연금도 연체 학자금 대출 압류 대상

45만명에 추심 가능성

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다. 소셜연금과 장애인연금 모두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체 상태에 있는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연방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재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TOP은 세금 환급과 연방 급여, 소셜연금 등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

록한 정부의 추심 절차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중단됐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재개하지 않았다. 압류는 월 수급액의 15%까지 할 수 있지만 압류 후 남은 수급액이 75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월 수급액이 750달러면 압류할 수 없으며 800달러인 경우 50달러만 압류할 수 있다. 월 수급액이 1200달러라면 180달러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소셜연금 압류 비율 15%는 공제 전 수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 전문 사이트 CNBC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 기준으로 62세 이상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은 약 290만 명에 달한다

. 이 중 약 45만2000명은 소셜연금에 대한 강제 추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강제 추심이 고령 수급자를 빈곤으로 내몰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과도 충돌한다고 경고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생활고나 학자금 대출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할 경우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① 위싱턴 중앙일보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670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배우 대런 크리스(왼쪽)와 헬렌 션이 8일(현지시간)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한 장면을 공연 중이다. 작품은 대런 크리스의 남우주연상을 포함해 6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신과 떨어내고 재즈 넣고... 영리한 현지화 통했다

8일(현지시간)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작품상·각본상·연출상 등 6관왕에 오르며 공연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브로드웨이 진출이라는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든 이 작품은 기획부터 완성까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설계로 뮤지컬 종주국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극은 민간 비영리 문화재단인 우란문화재단의 기획으로 만들어져 2015년 시범 공연을 거쳐 2016년 12월 약 300석 규모의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했다. 초연 공연이 폐막한 지 단 7개월 만에 앵글 공연을, 1년 8개월 만에 재연 공연을 올렸고 2018년 열린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소극장 뮤지컬상, 작곡상, 극본상 등 6관왕을 차지했다. 2024년 다섯 번째 시즌은 총 100회 공연, 평균 객석 점유율 99.4%이라는 기록과 함께 예매처 관객 평점 9.9점(10점 만점)을 달성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입증했다.

국내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힌 '어쩌면 해피엔딩'은 일찍이 글로벌 진출을 모색해왔다. 한국 초연을 올리기 전 미

국 뉴욕에서 낭독회 형식의 쇼케이스를 개최한 것이 단적인 예다. 투자자와 프로듀서, 극장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쇼케이스는 브로드웨이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핵심 단계로 향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해피엔딩' 역시 쇼케이스에서 토니상을 여덟 번 받은 유명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드의 눈에 띄면서 브로드웨이 공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시대극 '퍼레이드'로 2023년 토니상 베스트 리바이벌 뮤지컬상과 연출상을 받은 연출가 마이클 아넬을 섭외한 것도 리처드였다.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받은 배우 대런 크리스(올리버 역)도 합류했다.

이들은 이번 토니상에서 주요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연출상을 받은 마이클 아넬은 수상 소감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엄청난 위험부담이었을 수 있다"며 예술가들에게 "계속 위험을 감수하며, 희망을 불로고 더 깊은 진실을 탐구하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고장난 로봇 연기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대런 크리스는 "올해 이 놀랍도록 훌륭한 브로드웨이 시즌에 함께할 수 있어, 이 업계 최고의 동료 배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받기까지 초연 전 뉴욕서 낭독 쇼케이스 개최 유명 프로듀서가 주목해 계약 성사 시한부 사랑 노래도 밝게 부르는 등 영미권 관객과 정서적 거리 좁혀



해의 진출 뮤지컬 1 명성왕후 2 마리쿠리 3 어쩌면 해피엔딩 소품 화본. [EPA=연합뉴스, 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 엄

청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방영된 미국의 인기 TV시리즈 '글리'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다.

브로드웨이 공연은 1000석 규모의 벨라스코 극장에 맞춰 한국보다 스케일을 키웠다. 한국판에서 시한부 사랑을 노래하는 슬픈 넘버 '그림에도 불구하고'를 보다 밝은 재즈 느낌의 '텐 아 이 캔 렛 유 고'(Then I Can Let You Go)로 대체하는 등 감정선에서 신과를 떨어낸 점도 눈에 띈다. 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관객들이 좋아하는 비장한 넘버를 브로드웨이에선 '투머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영리한 현지화 작업을 거쳐 영미권 관객이 봐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서적인 거리감을 만들

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 뮤지컬의 브로드웨이 진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명성황후'가 K뮤지컬 최초로 링컨센터 무대에 오른 데 이어, 2011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룬 '영웅'이 단기 공연으로 현지 관

객을 만났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장기 공연이나 상업적 성공엔 이르지 못했다. 신준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한국인으로서 처음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해 무대에 올린 '할리우드 야 히어 미'(2014), '닥터자고'(2015)도 흥행 저조로 조기 종연했다.

최근 창작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뮤지컬들이 등장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신 대표가 리드 프로듀서를 맡은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 창작진과 손잡고 지난해 4월 브로드웨이 에 정식 진출했다. 작품은 브로드웨이 흥행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주당 100만 달러(약 13억원) 매출을 달성하며 '밀리언 클럽'에 들었다.

강병원 라이브 대표가 제작한 '마리쿠리'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쿼리의 고국인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뮤직가든스 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2023년 일본에 공연 라이선스를 수출했고, 지난해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영어 버전으로 두 달간 공연을 올리며 주목 받았다. 홍지유·최혜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octor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 전문의)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포스텍 토트넘 감독 경질, 손흥민 어떻게 되나



손흥민은 경질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별 인사를 했다. 감독을 먼저 "두목(gaffer)"이라고 부른 손흥민은 "당신은 내게 주장직을 맡김으로써 나를 믿어줬다. 내 선수 커리어의 최고 영광이었다. 가까이에서 당신 리더십을 배운 건 놀라운 특권이였다.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선수, 더 나은 인간이 됐다. 친구, 당신은 토트넘의 영원한 전설이다"라고 적었다. (손흥민 인스타그램 캡처)

리그 17위 부진에 발목 신임 감독에 따라 거취 사우디 구단 접촉설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는 지난 6일 구단 이사회를 열어 언제 포스테코글루(59·호주) 감독을 경질했다. 토트넘 측은 "미래를 위해 결단"이라고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 부임 2년 만에 토트넘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안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승 직후 축하 행사에서 "TV 시리즈는 시즌 3이 시즌 2보다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리즈는 시즌2로 종영했다.

17년 만의 우승 트로피가 EPL 순위 추락의 책임까지 덮여주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2024~25시즌 EPL에서 강등권(18~20위) 바로 위인 17위에 그쳤고,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의 결정타가 됐다. 부임 1년 만에 공격 일변도의 전술을 간파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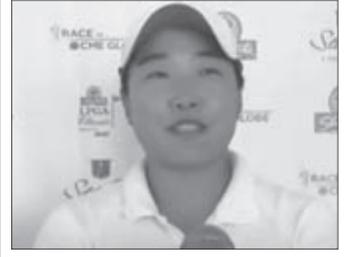
그런데도 양쪽 풀백이 올라가면서 생긴 빈 곳을 통한 상대 역습에 실절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손흥민(33) 등 핵심 선수의 줄부상으로 감독의 선수단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일부 선수는 구단의 감독 경질 방식에 분노해 팀을 떠날 마음까지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토트넘 사령탑 후보로 브렌트퍼드를 EPL에 안착시킨 토마스 프랑크(51·덴마크) 감독이 꼽힌다. 유연하게 전술을 운영해 강팀을 상대로도 선전했다.

또 공격수 브라이언 음비모(26)를 키워냈다. 다른 후보인 풀럼의 마르코 실바(47·포르투갈) 감독은 올림피아코스(그리스) 감독 시절 팀을 이끌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선전한 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주장직을 맡기는 등 신뢰를 보낸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로 손흥민 거취에도 시선이 쏠렸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에이전트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접촉했고, 토트넘이 손흥민 이적료로 1억 파운드(1억3500만달러)를 책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의 리더십과 경합을 필요로 할 거라는 얘기도 있다. 결국 거취는 차기 감독의 선택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쉽다, 이일희 1타차 준우승 LPGA 슝라이트 클래식

이일희(36·사진)가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슝라이트 LPGA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이일희는 8일 뉴저지주 글러웨이의 시뷰 베이 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4언더파로 대회를 마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로 우승한 제니퍼 켈초에 이어 단독 2위에 올랐다.

2010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이일희는 2013년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첫 승리를 신고했지만 이후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지 못했다. 어깨 부상과 슬럼프로 2018년에는 시드를 잃었고, 이후 투어 우승자에 주는 출전권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출전 기회가 적어 세계 랭킹이 1426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 사이 박사 학위를 따고 다른 일(금융 관련)을 하기도 했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골프'라는 생각에 필드로 돌아왔다. 파트타임 레슨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LPGA 투어 도전을 이어왔다.

이번 대회에서 이일희는 1라운드 공동 선두, 2라운드 단독 선두에 나서 통산 2승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마지막 날 컵초에 역전당했다. 그래도 2016년 9월 레인우드 클래식 공동 9위 이후 9년 만에 톱10에 복귀했다.

최종합계 12언더파의 김세영이 단독 3위를 차지했다. 김세영은 17번 홀홀인원 등 최종 라운드에서만 6타를 줄였다. 공동 5위(10언더파) 임진희까지 톱10에 한국선수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1위 넬리코르다(미국)는 8언더파 공동 15위를 기록했다.

한편, 같은 날 끝난 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나다 오픈(총상금 980만 달러)에서는 안병훈(34)이 공동 6위(15언더파)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그의 최고 순위다. 라이언 폭스(뉴질랜드)가 4차 연장전 끝에 우승했다.

송지훈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유럽 네이션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있다.

호날두 투혼, 포르투갈 네이션스리그 우승

후반 16분 동점골 성공 승부차기 스페인 꺾어

포르투갈이 6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UNL) 리그 A(1부리그) 정상에 재등정했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동점골의 주인공인 포르투갈 주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알나스르)는 우승 확정

순간 눈물을 쏟았다.

포르투갈은 8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시즌 UNL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스페인을 5-3으로 꺾었다.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챔피언 스페인은 우승 후보 0순위였다. 포르투갈은 첫 대회(2018~19 시즌)에 이어 이번에 우승해 최다(2회)

우승국이 됐다. 호날두는 유로2016까지 합쳐 국가대표로서 세 차례 우승을 맞았다.

UNL은 UEFA 55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국가대항전 리그다. UEFA 순위에 따라 최상위인 리그A(16개국)부터 최하위인 리그D(7개국)로 나뉘어 시즌을 운영한다. 최종순위에 따라 다음 시즌 승격 또는 강등된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호날두는 포르투갈이 1-2로 끌려가던 후반 16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누누 멘데스(23·파리생제르맹)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패스 한 공이 스페인 수비수에게 맞고 떠오르자 호날두가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개인 통산 221번째 A매치(국가대항전)에서 기록한 138호 골이다. 호날두는 대회 8골로 빅토르 요케레스(스웨덴·9골)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랐다.

피주영 기자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① 위싱턴 중양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심바스프링 로드에서 10분, 연안(Annapolis)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찰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연안(Annapolis)과 찰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6월 Special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단 하나의 하이엔드 헬스케어 로봇

NEW 파라오 Q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 Bang & Olufsen 음향기술 탑재 | 고급 천연가죽시트

10인치 터치 태블릿 리모컨 | XD-PRO 마사지 모듈 | 척추 라인 마사지

HIGH-TECH ROBOTICS TECHNOLOGY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컴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팔콘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월넛 우드 패턴' 디자인!

신제품 입고 기념 **20~25% OFF**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재미!

바디프랜드만의 새로운 기술

Medical **PHANTOM**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된다!



*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 퇴행성 협착증 치료를 위한 견인!

이런 분들께 팬텀 메디컬 케어를 추천합니다!

- 목과 허리 근육통 완화를 원하시는 분
- 목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거나 공부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 거치대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특가 세일

Osaki PRO 4D MAESTRO LE |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월 엄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휴표 흥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흥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퀵사이즈 \$1,199 |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흥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거기를 채우고 따르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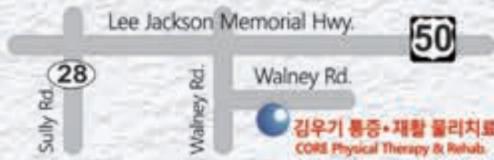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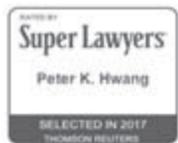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교통 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6월
구
인
광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엇시티 Cafe June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무경력자
-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0명
- 금요일 주방에서 보조 하실분 0명
443-386-0515

엘리엇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슈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엘리엇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찬모/웨이츄레스/웨이더
부페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지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엇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엇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폴/파타임, 배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골든 뷰 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엇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방 렌트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싱글룸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방 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포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엇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요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엇시티에서 20분 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매입/현장매입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ing Specialist :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customer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patronizing habits, 40 hours/week. Master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Blue Bell Inc, dba Pure in Heart Nail Boutique at 700 O St NW, Washington, DC 20001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소지 가능
Email : employe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 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애난데일 신촌 설령탕에서 웨이츄레스 2명 급구합니다. (풀&파트타임)
240-253-3518

Falls Church 서울 프라이머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야 주머님, 카운터 캐슈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엘리엇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속소 제공 가능)
찬모/웨이츄레스/웨이더
부페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 불문 유경력자 캐슈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슈페이 가능
571-352-4938/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폴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92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부스렌트,스킨케어원하시는분구함. 자세한사항은 문자,메세지다가는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구함 (일요일근무가능하신분)
703-750-2424 /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모십니다. -카운터캐시어, 유틸리티워커(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우대, 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하실분/파/폴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폴타임 메트로 3분 동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함
571-332-6110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구합니다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센터빌 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9시반까지 8세, 9세 아이들 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폴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시실분
703-473-6022.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VAC, Fenced back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 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 스크린 나무마루, Fence 있는 뒷마당, 남향, 밝은집,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넓은 리빙룸 \$1,600 (물값&가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델링 화장실, 고급스런 나무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새 창문, Costco, Walmart과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료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취사 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료 \$1,100
▶301-928-4125

애난데일 중심가 싱글홈 방 2 렌트, 부엌/화장실/입구 별도/주차 편리
703-395-4380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 렌트, 조지메이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터넷 유료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 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Candem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 서브리스 합니다. 방 1, 풀베스 1, 웨이 키친, 파킹티켓 1, 월 \$800
571-623-0255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트 방2/새 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가능, 워크 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낙낙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 완비, 즉시 입주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인터넷 유료
443-631-7866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방 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틸 포함
703-474-9713

첼트리 롯데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료,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유도,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증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애쉬번 타운 하우스 매매 \$670,000
▶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 옆
▶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 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교,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 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 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 571-239-6054

Stafford 싱글 하우스 \$71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 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
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데크, Stone Patio, 새
단지
▶ 703-813-8949

콘도 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
엿,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 룸,
DEN1, 넓은 발코니
▶ 703-813-8949

1. 사우스 라이딩 싱글 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
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페어팩스 타운 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국토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 건조기, 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2, 페리오, 스크린 데크,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
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 571-239-6054

1. 페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페어팩스 코스코 근
처에 있는 멋진 싱글 홈
2. 페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3. 페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 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 3.5, 랜트 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 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 2.5, 랜트 수익 \$3,000
3. 페어팩스 타운 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 3.5, 호수뷰, 차고2, 랜트 \$3,600
▶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 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 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
원, 레스토랑, 도서관 등 좋은 생활여건

▶ 703-483-0505

사업체 매매

치킨가게 양도 (한국 귀국)
1920 sf 현재 영업중 (알렌사드리아 옆)
주방 일체, 치킨 가게외 다른 업종도 가능
재정 상태 양호 하신분
703-338-1636 / 646-415-2347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
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
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져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심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 옆
▶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 571-239-6054

▶▶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 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캐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상업중심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비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 우표 수집한것 팔립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
인터넨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
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장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방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딩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물세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서비스
▶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충처리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뜰만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제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 계단
- 워크웨이
-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셉텀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분, 사실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가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 blinds.com / bbgb 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 &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ake advantage of (something) ... 활용하다, 이용하다

(Laura is talking to her roommate Kelly ~)

(로라가 룸메이트 켈리와 이야기하며 ~)

Laura: What are your plans for today Kelly?
로라: 켈리 오늘 무슨 계획 있어?
Kell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켈리: 바닷가에 가려고 해.
Laura: That sounds like fun.
로라: 그거 재미있겠다.
Kelly: I want to take advantage of this great weather.
켈리: 이 좋은 날씨를 놓치지 않으려고.
Laura: I know. It's been raining all week and now the

sun is out.
로라: 맞아.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다가 이제 해가 나왔으니까
Kelly: What are you up to?
켈리: 넌 뭐 할 거야?
Laura: My Mom is coming over and we're going to go to the mall.
로라: 엄마가 이리로 오시면 함께 쇼핑물에 갈 거야.
Kelly: Oh go to that clothing store on the second floor.

A lot of their dresses are marked down.
켈리: 아 거기 2층에 있는 옷 가게에 가봐. 가격을 내린 옷이 많아.
Laura: We'll definitely go there.
로라: 거기는 꼭 들릴 거야.
Kelly: Well I'm going to head for the beach. I'll see later today.
켈리: 그럼 나는 바닷가로 가야겠다. 이따 봐.

기억할만한 표현
▶*What is (one) up to?: 뭐 할 거야?
"What are you up to tonight?" (오늘 밤에 뭐 할 거야?)
*marked down: 가격이 내렸다.
"These boots have been marked down from \$100 to \$65." (여기 있는 부츠는 가격이 100달러에서 65달러로 내렸어.)
*head for (or to) a place: (어디로) 가다 향하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가로열쇠

(2)바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건물 따위의 꼭 대기에 세우는 금속 막대 (4)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키는 사람 (6)무더위가 가장 절정인 삼복에 보양식을 먹거나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이겨내는 일 (8)마음속으로는 간절하지만 감히 청하지 못한. 고소원(바라던 바)이나 ~이라 (9)어린이 같은 얼굴 (10)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12)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 (14)굴 (16)마음을 다잡지 않고 놓아 버림 (18)나이가 같은 사람 (20)풀과 나무 (22)점을 쳐 준 값으로 주는 돈 (24)두 마리가 함께 다닌다고 하여 화목한 부부를 상징하며, 동양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26)소의 무릎의 종지뼈와 거기에 붙은 고깃덩이 (28)가루에 물을 섞어 이겨 감 (30)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32)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됨. ~ 빈의 빈 (33)간장, 술, 김치 따위의 물기 있는 식품의 표면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흰색의 물질 (35)납땀이 아내와 함께 동행함 (36)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흥을 돋울 때 하는 말.

세로열쇠

(1)일 년 중에서 여름철의 가장 더운 기간인, 초복·중복·말복 ~ 중 오늘은 중복이지요 (2)임신을 피함 (3)걱정이 많아서 잠을 편히 자지 못함 (4)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온 손님 (5)하늘에서 번쩍이는 불꽃.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 (7)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11)곤기름 (12)뒤가 두 갈래로 길게 내려와 마치 제비(안)의 꼬리처럼 보이는 남자용 예복 (13)돈, 신분증이 들어 있지요 (15)꽃이 피는 풀과 나무 (17)산삼을 캐는 일이 직업이지요 (19)과거에서, 갑과에 첫째로 급제함 (21)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얹어낸 밧줄에 몽둥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23)차릿 개비나 버들가지로 울이 없이 넓적하게 엮어 만든 그릇 (25)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봄. ~ 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7)머리털을 양쪽으로 갈라 빛으면 금이 생기지요 (29)대오리로 길고 동글게 엮어 만든 기구. 여름밤에 끼고 잔다 (31)풀을 뜯기며 가축을 치는 아이 (33)중심이 되는 줄기를 이루는 것 (34)밟으면 터지지도.

스도쿠

9	1		2				4	
			1				8	9
4		8	7					
3	4					1	9	5
	6	5		9				2
						5	6	3
5		6	9		7			
	7							
	8	4		1	3	7	9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6	7	3	1	5	4	8	2
4	5	3	2	9	8	6	7	1
8	2	1	7	4	6	9	3	5
7	3	9	5	2	4	1	6	8
2	1	4	8	6	3	5	9	7
5	8	6	1	7	9	2	4	3
1	9	2	6	3	7	8	5	4
6	7	8	4	5	1	3	2	9
3	9	4	5	6	8	2	7	1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자격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목회 5년이상 경험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본교단 P.I.F. 1부 (서식은 www.pcusa.org에서 다운로드)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1부 (목회 경력, 가족사진 등 포함)
 목회비전 1부 (신앙 간증문, 목회 동기 및 목회철학, 교회사역 등 포함)
 학위 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1부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제출처
 Hope Presbyterian Church (Attn. 청빙위원회)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접수마감
 2025년 6월30일(월) 23시 59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6년 기간 위임 후 재청빙

문의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Attn. 청빙위원장)

HOPE CHURCH 한소망교회 청빙위원회 미국 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가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린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이 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기절된분 환영
-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삼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Since 1874 **ADT** 877.373.0265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